

# 바웃다 일과



사단법인 세계불학원



## 염송 청명으로 세계일화를

『자설어(自說語, Udāna)』에는 붓다를 만나지 않고 출가한 소나(Soṇa) 장로에게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여, 법을 환히 설하여 보도록 하라.” 소나 장로는 ‘앗티까박가」(『숫따니빠타』제4장) 열여섯 계송 전부를 낭랑하게 노래하였다.’

위 경전 사례는 붓다를 믿고 청명하며 의지하고, 붓다의 말씀을 삶과 수행의 지표로 삼으며, 청정한 승가를 공경하며 따를 것을 서원한 바우다(佛子)는 나날이 삼귀오게 서원과 함께 경전 염송으로 정진의 좌표로 삼아야 함을 일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를 믿고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을 것을 서원한 바우다를 위해 사단법인 세계불학원에서는 나날이 삼귀의·오선계의 서원과 더불어 경전 염송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우다 일과』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의 좌표로 삼고 있는 경전 염송의 일과 형식은 지역이나 종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라와다불교의 <예경문>이 대표적인 형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전(漢傳)불교 형식에는 『육경합부』, 『선문일송(禪門日誦)』, 『조모과송(早暮課誦)』, 『불교염송집』 등이 있고, 한국불교에도 『소재길상 불경보감』이나 현대의 『불자염송경』 등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다 염송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각 불교의 전통의 종지에 적합한 경전 염송을 선택하여 수행을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전이나 다라니를 염송하거나(『선문염송』 등) 대중의 다양한 종교성을 위해 금강경, 아미타경,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능엄주, 관음예문 등 여섯 편을 합한 『육경합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육경합부』는 고려 후기에 한국불교에 전해져 조선 중·후기까지 유통되었다고 보입니다.

한국불교의 경전 염송은 『염불작법』이나 『일용작법』 계통의 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석례절차, 조례절차에 배당된 송주(誦呪)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경주(經呪)를 염송하지만 대체로 저녁에는 대비주(천수주), 장엄염불, 시식(施食)이고, 아침에는 능엄주를 염송하고, 뒤에 준제행법을 염송합니다. 조선 후기 이후 관세음보살의 신주(神呪)나 대불정능엄신주를 두 줄로 요약한 능엄주와 소재길상주, 관세음보살모다라니, 여의륜주 등을 ‘사대주’라 하여 아침 예불 이후에 염송하는 전통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수행 중에 일어나는 마장을 없애기

위해 아침에는 능엄주를 염송하였고, 도량의 결계와 정확을 위해 대비주를 염송하는 전통이 한국불교에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모송주(朝暮誦呪) 전통은 1960년대 이후 현대에 접어들어 ‘예불’이나 ‘예참’의 예경(禮敬)이 중심이 되면서, 칠정례와 천수주를 중심으로 염송하는 ‘현행’ 천수경 염송이 조석 문안 인사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붓다께서 설하신 경전의 염송은 붓다로 살아가는 이들의 주요한 삶의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요 양상을 보면 일상에서 경전 염송의 전통은 약해지고, 법회 때 주로 염송하거나 다라니 기도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웃다는 붓다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하였으므로 붓다의 말씀을 늘 염송하여 자신을 되새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과일 것입니다. 본 일일 과송 정진은 전통의 조모과송을 바탕으로, 아침에는 능엄주와 예불발원문을 염송하고 회향하며 각자 형편에 맞도록 정근하고 축원합니다. 아니면 아침저녁 구분 없이 일과로 테라와다(상좌부)의 세 경전을 염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늦은 오후 [저녁]에는 천수대비주를 중심으로 『육경합부』에서 관음예문 대신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인 『유교경』을 바웃다 염송 경전으로 선택하여 염송하도록 하였는데, 경전 배열은 전통의 아함부, 반야, 법화, 화엄, 유교경 순서로 현대의 교판(敎判)을 참고하였고, 아울러 붓다 생애 상의 특징을 살렸고, 또 『열반경』 등에서 붓다께서 제자에게 부촉한 광야귀신 등에 대한 시식을 위해서 <몽산시식의>를 요약한 <시식의>를 편제해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교적(始敎的)인 일일 염송 이후 마지막에 명상이나 참선의 종교적(終敎的) 수행을 위해 삼매담기를 편제하였습니다.

경전 염송을 시작하는 ‘염송의’와 마칠 때의 ‘회향의’는 중국불교의 경우 기송의(起誦儀)나 결송의(結誦儀)를 경전마다 다르나, 『바웃다 일과』에서는 누구나 쉽게 암송하며 염송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염송의’와 ‘회향의’로 통일하였는데, 개경계와 수경계는 현대 역경의 거장 월운 화상의 한글본을 채택하였습니다. 염송의 입출 때는 “나모붓다야” 십념 칭명으로 시작하고 마치도록 하였으며, 염송 공덕 회향 이후 각자의 신앙에 따라 “나모붓다야/석가모니불/관음보살/지장보살/아미타불/약사여래” 칭명 기도로 축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본 염송에 채택한 경전의 원전은 경제 아래 표기하였고, 번역은 [사]세계불학원 참여 연구위원들이 참여로 번역·윤문하였는데, 전통의 한문 계송과 구절은 중복적이거나 지문이나 의고체 의문문 등은 과감히 생략하여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1구 7언 계송은 두 음보 번역을 원칙으로 부드러운 운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언 다라니의 경우 전승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모가 있었는데, 본서의 표기 원칙은 전통의 <천수주>의 경우 82구를 L. Chandra범본을

기준으로 의미별로 48단락으로 나눈 다음 쉽표로 찍어쓰기하였고, 능엄주의 경우 정태혁이 정리한 『능엄경』 7권의 427구 본을 채택하였습니다. 『금강경』의 경우 13분의 2절까지만 읽되 의미 중심 번역으로 종전 한자 전문 5,149자보다 적은 3,850여 자로 축약하였습니다. 다른 경전이나 발원문도 같은 번역 원칙에 따라 문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문품, 행원품, 유교경 등도 의미 중심으로 간략하게 운문하였는데, 가령 붓다께서 말씀하시거나 제자가 말씀드리는 지문은 삭제하고 대사 앞에 붓다 수부티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예불참회문」은 53불, 35불에 대한 칭명으로 귀명사 나모를 처음에 한 번만 칭명하고, 번역은 시종 유통본의 시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1일 1회 1편 또는 3편을 매일 염송하되, 기도 정진할 때는 각자 발원에 따라 편수나 시간, 일수를 정해놓고 정진하면 좋을 것입니다. 매일 다른 경전을 염송하거나 특정 경전을 염송하는 등 경전의 선택은 바우다 각자의 서원에 따르면 됩니다. ‘염송의’를 시작으로 경전과 다라니를 염송하고, ‘회향의’로 마친 다음 명상이나 참선에 듭니다.

보편적 ‘불교하기’를 기저로 상좌부와 대승의 주요 경전을 조석으로 염송하며, “나모붓다야” 칭명으로 세계의 바우다가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오묘한 경지를 이루자는 뜻에서 본 염송과 정진의 일과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 차 례

始: 念誦

- 조송 -

염송의/ 7

능엄주/ 8

발원문/ 16

회향의/ 19

행복경/ 20 · 자애경/ 23 · 보석경/ 25

- 모송 -

염송의/ 29

천수주/ 30

미타경/ 32

금강경/ 40

보문품/ 51

행원품/ 64

유교경/ 85

회향의/ 96

참회문/ 97

회향의/ 106

시식의/ 107

회향의/ 112

終: 삼매 닦기/ 113

## 염송의

나모붓다야 [십념]

[바웃다 삼귀계]

붓다를 믿고 칭명하며 따르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청정한 승가를 공경하며 따르겠습니다.

[바웃다 오선계]

나는 생명을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흠치거나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험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술 담배 육식을 절제하겠습니다.  
나는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개경계주]

높고 깊은 붓다님 법  
만나옵기 어렵건만  
제가 이제 받아 지녀  
참된 의미 깨치리다.  
「옴 아라남 아라다」 [삼편]

사타타타가타 우슈니샤 시타타파트라  
아파라지타 프랑티앙기라 다라니

Paramiti(般刺蜜帝, 707) 譯

[각 회 끝의 ○○○에는 자기 이름을 넣음]

[1회] 나마스 타타수가타야 아르하트 삼막삼붓다시  
야, 사티야타 붓다 코티슈니삼, 나모 샷트와 붓디  
보디샷타바야, 나모 삽타남 삼막삼붓다 코티남, 사  
슈라바카 상가남, 나모 로케 아르하타남, 나모 스로  
타판나남, 나모 사크리다가미남, 나모 로케 삼막가  
타남, 삼막 프라티판나남, 나모 데바리쉬남, 나모 싯  
디 비디야 다라리쉬남, 사파남 그라흐사마르타남,  
나모 브라마네, 나모 인드라야, 나모 바가바티, 루드  
라야, 우마파티, 사히타야, 나모 바가바티, 나라야나  
야, 판차마하삼무드라, 나마스크리티야, 나모 바가  
바티, 마하칼라야, 트리푸라나가라, 비드라바나 카  
라야, 아디묵티카, 슈마샤나 니바사네, 마트리가남,  
나마스크리티야, 나모 바가바티, 타타가타 클라야,  
나모 파드마 클라야, 나모 바즈라 클라야, 나모 마  
니 클라야, 나모 가자 클라야, 나모 바가바티, 드리



다수라세나, 프라하라나 라자야, 타타가타야, 나모  
 바가바티, 나모 아미타바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티,  
 삼막삼붓다야, 나모 바가바티, 아크쇼비야야, 타타  
 가타야, 아르하티, 삼막삼붓다야, 나모 바가바티, 바  
 이샤지야구루바이두리야, 프라바라자야, 타타가타  
 야, 나모 바가바티, 삼푸슈피타, 샬렌드라라자, 타타  
 가타야, 아르하티, 삼막삼붓다야, 나모 바가바티, 사  
 키야무니예, 타타가타야, 아르하티, 삼막삼붓다야,  
 나모 바가바티, 라트나케투라자, 타타가타야, 아르  
 하티, 삼막삼붓다야, 테비요 나마스끄리티야, 에타  
 드 바가바티, 사타타가토슈니삼, 시타타파트라, 나  
 모 아파라지타, 프라티앙기라, 사르바부타그라하,  
 니그라하카라니, 파리비디야체다니, 아칼라므리티  
 유, 파리트라야나카리, 사르바반다나모크샤니, 사르  
 바두슈타, 두슈타스와프나 바라니, 차투라쉬티남,  
 그라하 사하스라남, 비드왕사나카리, 아슈타 빙사티  
 남, 나크샤트라남, 프라사다나카리, 아슈타남, 마하  
 그라하남, 비드왕사나카리, 사르바 샤트루니 바라  
 니, 고라두슈타 스와프나남 차나샤니, 비샤샤스트  
 라, 아그니 우다카 윗타라니, 아파라지타 고라, 마하  
 발라 찬다, 마하디파타, 마하테자, 마하 슈웨타즈왈

라, 마하발라 판다라바시니, 아리야타라, 브리쿠티,  
 차이바 비자야, 바즈라 말라티, 비슈루타, 파드마카,  
 바즈라지바차, 말라차이바파라지타, 바즈라 단디,  
 비살라 차, 산타 비데하 푸지타, 수마야 루파, 마하  
 슈웨타, 아리야타라, 마하발라 아마라, 바즈라 상칼  
 라 차이바, 바즈라 쿠마리, 클라다리, 바즈라 하스타  
 차, 비디야 칸차나 말리카, 쿠슴바라트나, 바이로차  
 나 크리야, 야라투 슈니삼, 비즈림바마나차, 바즈라  
 카나카 프라바, 로차나 바즈라툰디차, 슈웨타 차 카  
 말라, 아크샤샤쉬 프라바, 이티 에테, 무드라 카나,  
 사르바 락삼, 쿠르반투, 잇탐 मामाशिया, ○○○.

[2회] 음, 리시가나, 프라샤스타, 사타타가토슈니샤,  
 흠, 트룸, 잠바나, 흠, 트룸, 슝밤바나, 흠, 트룸, 파라  
 비디야 삼바크샤나카라, 흠, 트룸, 사르바라크샤라  
 크샤시야, 그라하남, 비드왕사나카라, 흠, 트룸, 차  
 투라쉬티남, 그라하 사하스라남, 비드왕사나라, 흠,  
 트룸, 라크샤, 바가반, 마 타타가토슈니샤, 프라티  
 앙기라, 마하 사하스라, 부자 사하스라쉬르샤, 코티  
 사하스라네트레, 아비디야 즈왈리타, 나타케, 마하  
 바즈라다레, 트리바바나, 만달라, 음, 스와스티르 바

바투, 마마, 잇탐 마마시아, ○○○.

[3회] 라자 바야트, 차우라바야트, 아그니 바야트, 우  
다카 바야트, 비샤 바야트, 샨스트라 바야트, 파라차  
크라 바야트, 두르비크샤 바야트, 아샤니 바야트, 아  
칼라므리티유 바야트, 다라니부미캄파 카파타 바야  
트, 울카파타 바야트, 라자단다 바야트, 나가 바야  
트, 비디유티 바야트, 수파르나 바야트, 야크샤 그라  
하트, 라크샤 그라하트, 프레타 그라하트, 피샤차 그  
라하트, 부타 그라하트, 쿨반다 그라하트, 푸타나 그  
라하트, 카타푸타나 그라하트, 스칸다 그라하트, 아  
파스마라 그라하트, 운마다 그라하트, 차야 그라하  
트, 레바티 그라하트, 자타아하리니야, 가르바아하  
리니야, 루디라하리니야, 망사아하리니야, 메다하리  
니야, 맛자하리니요, 오조하리니야, 지비타하리니야,  
바타하리니야, 반타하리니야, 아슈치야하리니야, 칫  
타하리니야, 테샨사르바삼, 사르바그라하남, 비디얀  
체다야미, 킬라야미, 프라브라자카 크리탐, 비디야  
얌 체다야미, 킬라야미, 다키니크리탐, 비디얌 체다  
야미, 킬라야미, 마하파슈파티, 루드라 크리탐, 비디  
얌 체다야미, 킬라야미, 나라야냐크리탐, 비디얌 체

다야미, 킬라야미, 톳트와 가루다 사하야 크리탐, 비  
 디얌 체다야미, 킬라야미, 마하칼라 마트리가나 크  
 리탐, 비디얌 체다야미, 킬라야미, 카팔리카 크리탐,  
 비디얌 체다야미, 킬라야미, 자야카라 마두카라, 사  
 르바르타 사다나크리탐, 비디얌 체다야미, 킬라야  
 미, 차투르 바기니크리탐, 비디얌 체다야미, 킬라야  
 미, 브링기리티, 난다케슈와라 가나파티, 사하야 크  
 리탐, 비디얌 체다야미, 킬라야미, 나가나 슈라와나  
 크리탐, 비디얌 체다야미, 킬라야미, 아르하트크리  
 탐 비디얌 체다야미, 킬라야미, 비타라가 크리탐, 비  
 디얌 체다야미, 킬라야미 바즈라파니, 구야카 구야  
 카, 아디파티 크리탐, 비디얌 체다야미, 킬라야미,  
 라크샤 맘, 바가반, 잇탐 मामाश्या, ○○○.

[4회] 바가반, 시타타 파트레, 나모 아스투레, 아시타  
 날라루카, 프라바스와타, 비카시타타 팻트레, 즈발  
 라 즈발라, 다라 다라, 비다라 비다라 체다 체다, 흠,  
 흠, 파트, 파트 파트 파트 파트, 스와하, 헤 헤 파트,  
 아모가야 파트, 아프라티하타야 파트, 바라프라다야  
 파트, 아수라 비드라바카야 파트, 사르바 데베비아  
 파트, 사르바 나게비아 파트, 사르바 야크샤비아 파

트, 사르바 간다르베비야 파트, 사르바 부레비야 파트, [사르바] 카타푸타네비야 파트, 사르바두르랑기 레비야 파트, 사르바 두슈프레 크쉬레비야 파트, 사르바 즈왈레비야 파트, 사르바파스마레비야 파트, 사르바 슈라바네비야 파트, 사르바 티르티케비야 파트, 사르바 운마데비야 파트, 사르바 비디야다레비야 파트, 자야카라 마두카라, 사르바르타사이다케비야 파트, 비디야 차레비야 파트, 차투르 바기니비야 파트, 바즈라쿠마리, 비디야 라기비야 파트, 마하 프라티앙기라비야 파트, 바즈라 상카리야, 프라티앙기라자야 파트, 마하찰라야, 마하 마트리가나, 나마스 크리타야 파트, 비슈나베 파트, 브라마네 파트, 아그나에 파트, 마하찰라야 파트, 칼라단다야 파트, 마트레 파트, 루드라야 파트, 차문다야이 파트, 칼라 라이트리야이 파트, 카팔리네 파트, 아디묵티카 슈마샤나, 바시네 파트, 이에 카치트, 샷트와스, 나마 잇탐 मामाश्या, ○○○.

[5회] 두슈чит타하, 아미트라чит타하, 오자하라, 가르바라, 루디라하라, 바사하라, 망사하라, 자타하라, 지비타하라, 발리야하라, 간다하라, 푸슈파하라, 파라

하라, 사시야하라, 파파치타, 두슈타치타, 루드라치  
타, 야크샤그라하, 라크샤그라하, 프레타그라하, 피  
샤차그라하, 부타그라하, 쿨반다그라하, 스칸다그라  
하, 운마다그라하, 차야그라하, 아파스마라그라하,  
다카다키니그라하, 레바티그라하, 자미카그라하, 샤  
쿠니그라하, 마트리난다카그라하, 아람바카그라하,  
간타파니그라하, 즈와라에카니카, 드위티야카, 트리  
티야카, 차투르타카, 니티야 즈와라 비스마라, 바티  
카, 파잇티카, 술라이슈미카, 산니파티카, 사르바즈  
왈라, 시로루자, 아르다바 베다카, 아크시로가, 무카  
로가, 칸타로가, 갈라로가, 카르나술람, 단타술람,  
흐리다야술람, 마르마술람, 파르슈와술람, 프리슈타  
술람, 우다라술람, 카티술람, 바스티술람, 우루술람,  
장가술람, 하스타술람, 파다술람, 사르방가프라티앙  
가슈람, 부타 베타라, 다키니즈왈라, 다드루 간다 키  
티발루타, 비사르팔로하 링가, 슈샤트라사나 카라,  
비샤요가, 아그니우다카, 마라 비라 칸다라, 아칼라  
므리티유트리얌부카, 트라이라타, 브라슈치카, 사르  
파나쿨라, 싱하 비야그리 야크샤타레슈, 마라 지바  
스 테샨사르베샨, 시타라파트라, 마하 바즈라우슈니  
샨, 마하프라티앙기람, 야바트드와다샤요자나, 아비

얀타레나, 비디야 반당 카로미, 데샤 반당 카로미,  
파라비디야 반당 카로미, 타디야타, 음, 아날레, 비  
샤디, 비라 바즈라다레, 반다 반다네, 바즈라파네 파  
트, 흠 트럼 파트, 스위하 [꺄]

[능엄주는 사교집 능엄경에는 이상의 427구가 대정대장경에는 439구가 시중 유통본은  
550여 구 본이 유통되고 있으나 본 과송용 능엄주는 정태혁의 『정통밀교』에서 범어로  
환원한 본이다.]

# 예불발원문

怡山禪師(『緇門警訓』, 『韓國佛教全書』第八冊, p.610)

시방에 두루 하신 조어사調御師와  
널리 펴신 청정 미묘법微妙法과  
삼승三乘 사과四果 증득한 해탈승께 귀명하오니  
자비를 내려 주사 가련히 여겨 섭수攝受하소서.  
(발원하는) 나는  
진여眞如 본성을 어기고 미망迷妄의 세계에 부질없이 들어가,  
생사生死를 따라 부침浮沈하였고;  
색色과 소리[聲]를 좇아 탐욕에 물들어,  
열 가지 얽매임과 번뇌로 무상한 인연을 쌓았고;  
육근六根과 육진六塵으로 가없는 죄를 망령스레 지어,  
고해苦海의 그릇된 길에 깊숙이 빠져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굽은 것을 곧은 것이라 억지 부렸습니다.  
다생의 업장業障과 일체의 허물을,  
우러러 삼보三寶의 자비慈悲에 의지하여  
일심一心으로 참회하며 소원합니다.  
붓다시여, 선우善友들을 건져내고 서로 도와  
번뇌의 깊은 바다에서 벗어나 깨침의 피안彼岸에 이르며,  
금생에는 복의 터전과 명운命運의 자리가 각각 풍성해지고;  
내생에는 지혜 종자의 싹이 더욱 빼어나기를 함께 바라며,



좋은 나라[中國] 태어나서 좋은 스승 항상 만나;  
 바른 믿음으로 출가하여 동진童眞으로 불도佛道에 들어가며,  
 육근六根은 중도中道에 통하여 막히지 아니하고,  
 삼업三業은 순일하고 동화同和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청정한 행 항상 닦으며,  
 금계禁戒를 잘 지켜 땅과 초목 함부로 훼손치 않고;  
 행동거지 조심하여 미물조차 해치지 않겠습니다.  
 팔난八難을 만나지 않고, 사연四緣이 빠지지 않아,  
 반야지가 눈앞에 드러나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정법正法을 닦고 익히며 대승大乘의 요체를 깨쳐,  
 육바라밀 실천하여 삼기겁해三祇劫海 건너겠습니다.  
 곳곳에 법法의 깃발 세워 겹겹으로 싸인 의심 없애며,  
 갖은 마군魔軍 조복하고 삼보三寶를 잇사오며,  
 시방제불 섬기되 지치지 않고,  
 일체 법문法門 배워 익혀 통달하며,  
 복과 지혜 널리 지어 한없는 법계 중생 이익 주고,  
 여섯 종류 신통 얻어 일생의 불과佛果를 원만히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는] 법계를 버리지 않고 속진에 들어,  
 관음의 자비심과 같아지고 보현의 원력을 행하며,  
 여기저기 어디서나 온갖 무리 따라  
 색신을 나타내어 미묘微妙 법문法門 설하며,  
 지옥 아귀 축생도에 들어 대 광명과 신통을 보이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심菩提心 내고 윤회의 고통苦海을 영원히 헤어나되,  
 확탕鑊湯지옥 한빙寒氷지옥 향기로운 숲으로 변해지고;  
 음동飲銅지옥 철환鐵丸지옥 중생들은 극락에 화생化生하며,  
 온갖 짐승 빛진 이 원한 품은 이,  
 모두 괴로움 쉬고 복락福樂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질병 도는 세상에는 약초로 나타내 오랜 병을 치료하고;  
 굶주리는 세상에는 곡식 되어 가난과 굶주림 건지리니,  
 오로지 이익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세생생 원수거나 친한 이나 함께 사는 권속이나  
 나고 죽는 고통의 부침浮沈에서 벗어나고;  
 만겁에 걸친 갈애의 얽매임을 끊어내겠습니다.  
 일체 중생 똑같이 불도佛道를 이루오며,  
 허공계가 다하고 나의 발원이 다하도록  
 유정有情 무정無情이 일체종지一切種智 함께 원만하게 되어지이다.  
 나모석가모니불  
 나모석가모니불  
 나모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예불발원문”은 性聰 『緇門警訓註』에는 「怡山然禪師發願文」(『韓佛全』 8-610上)이라 하여 혜연 선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精選懸吐 緇門』(安震湖 편, 법륜사, 1981, 2판, 50쪽후)에 “然은 惠然이라”는 협주가 있고; 1970년대 이후 吳果山 『佛子受持讀誦經』(1976년 초판); 李智冠 編著, 『信行寶鑑』(대각회 출판부, 1980)에는 「이산 혜연 선사 발원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면서 ‘慧然’이라고 표기되었다고 보인다.

팔난(八難): 불법 만나는 데 장애가 되는 인연으로, 지옥, 아귀, 축생, 장수천, 울단월(수승처에 머물게 되는 난, 병어리 귀머거리 등, 출세정법을 믿지 않는 난, 붓다 전후에 태어나는 난 등을 말한다.

사연(四緣): 불법 만나 깨치는 데 도움 되는 인연으로, 因緣, 等無間緣, 所緣緣, 增上緣.

## 회향의

[수경계]

말씀 듣자 마음 열려  
붓다인 줄 알았으니  
일생토록 의심 않고  
시시때때 활용하리.

[회향계]

뛰어나고 가없는  
송경 공덕 회향하니  
고통 속의 중생들은  
극락세계 어서 가소.

나모붓다야 [십념]

[축원]

축원하려면 “나모붓다야” 십념 전에 “옴, 공경하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중생이 지혜로 안락하고 정토에 들게 하는 우리들의 스승이신 붓다님께 귀명합니다.” 하고 “나모붓다야/석가모니불/관세음보살/지장보살/약사여래/아미타불” 등 자신이 수행하는 불호를 십념 이상 염불한 다음 “붓다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가족 건강하고, 저의 학문/사업/직무 이뤄지며/성취하며, 친지들은 행복하고, 이웃들은 안락하며 구경에는 해탈하여지이다. 감” 하는 식으로 축원하고 마친다.

## 테라와다 염송경

행복경 (Mangala Sutta, Sn 2.4)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 시  
제타 숲의 아나타벤디까<sup>[祇園精舍]</sup> 승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인이 한밤중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원정  
사를 환히 비추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와 세존께  
게송으로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천인] 많은 천인과 사람들이,  
최상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행복을 바라고 생각하오니,  
최상의 행복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세존]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않고,  
현명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이를 공경할지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할지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많이 배우고 좋은 기술을 익히며  
몸과 마음을 계율로 잘 다스리고  
선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나눌지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일할 때도 안정되어 혼란스럽지 않을지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널리 베풀고 정의롭게 살며,  
친지들과 화합하며 서로 돕고,  
남에게 비난받지 않게 행동할지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악한 행위를 삼가고 경계하며,  
술과 약물을 절제하고,  
선행에 게으르지 않을지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타인을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과 감사할 줄 알며,  
적당한 때에 진리를 들을지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며,  
때로는 수행자를 만나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논의할지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청정하게 살며,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하고 통찰하여,  
거룩한 열반을 이룰지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세상살이 번잡한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걱정 없이 안온할지니,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누구라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디서든 실패하는 일 없이  
모든 곳에서 행복하리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끝]

자애경 (Metta sutta, Sn 1.8)

선한 일을 능숙하게 실천하고  
평정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면  
매사에 유능하고 정직하며  
고결하고 온화하여 교만하지 말라.

만족할 줄 알아,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몸과 마음 분주하지 않고 간소하며  
몸과 마음 고요하고 슬기로워  
세속 일에 무모하거나 집착하지 말라.

현명한 이들의 비난을 살만한  
작은 행동이라도 삼가며  
안락하고 평화로워서  
모든 이들이 행복할지어다.

살아 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남김없이  
길거나 크거나 중간 것이나 짧은 것이나  
작거나 거친 것이나 모두 예외 없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태어날 것이나  
모든 존재여, 행복할지어다.

서로를 속이지 말고 혈뜻지 말지니,  
어디서든 누구든 멸시하지 말지니,  
분노와 증오로 인하여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말라.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이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뉘을지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의 모든 곳으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넓은 곳으로  
걸림 없이, 증오 없이, 적의 없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뉘을지어다.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깨어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자애의 마음을 뉘어나갈지니  
세상에서는 이를 고귀한 삶이라 한다.

삿된 견해에 매이지 않고  
제행을 지니고, 통찰력을 갖춰  
감각적인 욕망을 다스리면,  
결코 다시 모태에 들어 윤회하지 않으리라.

[끝]



보배경 (Ratana sutta, Sn 2.1)

이 자리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 위에 있는 것이건 하늘에 있는 것이건,  
존재들이여, 언제나 행복하여라.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을지니.

존재들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라.  
밤낮으로 그대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니,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이 세상과 내세의 재물이라도,  
천상 세계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여래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붓다 안에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석가족의 성자가 완전한 고요와 삼매로  
성취한 적멸과 불사의 경지,  
이것과 견줄만한 보배는 아무것도 없다.  
가르침 안에 가장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붓다께서 칭찬하신 청정한 삼매는  
즉각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이니,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르침 안에는 가장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현자들이 찬탄하는 네 쌍 여덟 종 사람은  
선서의 제자로서 공양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결실이 있다.  
상가 안에는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감각적 욕망이 없이 확고한 마음으로,  
고따마의 가르침 따라 잘 수행하는 이들은  
불사에 들어 목표를 이뤄 적멸과 평온을 즐긴다.  
상가 안에는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단단한 기둥이 땅속에 깊이 박혀 서 있으면  
사방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거룩한 진리 깨친 이는 이 같다고 나는 말하네.  
상가 안에는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심오한 지혜를 갖춘 붓다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이들은  
큰 잘못이 있더라도 여덟 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상가 안에는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통찰을 성취하면, 개체가 있다는 견해, 회의적인 의심,  
계행과 의식에 대한 집착이 즉시 제거되고,  
네 악도를 벗어나고, 여섯 가지 악행을 범하지 않네.

상가 안에는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저지른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것을 감추지 못하니,  
궁극의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 없다.

상가 안에는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여름날 첫 더위가 숲속의 총림이 꽃을 피워내듯,  
이같이 붓다의 오묘한 법의 가르침은  
최상의 행복인 열반으로 인도한다.

붓다 안에는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최상의 것을 알고, 최상의 것을 주고,  
최상의 것을 가져오는, 최상의 입에서,  
최상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붓다 안에는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과거 업은 없어지고, 새로운 업은 쌓지 않으며,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근원을 소멸하였으니,  
현자들은 마치 등불이 꺼지듯 열반에 든다.

상가 안에는 훌륭한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라.

이 자리에 모인 존재들이,  
천인과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렇게 오신 붓다께 경례하니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라.

이 자리에 모인 존재들이,  
천인과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렇게 오신 임의 가르침에 경례하니,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라.

이 자리에 모인 존재들이,  
천인과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렇게 오신 임의 상가에 경례하니,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라.

[끝]

## 염송의

나모붓다야 [십넬]

[바웃다 삼귀계]

붓다를 믿고 칭명하며 따르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칭정한 승가를 공경하며 따르겠습니다.

[바웃다 오선계]

나는 생명을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흠치거나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험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술 담배 육식을 절제하겠습니다.

나는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개경계주]

높고 깊은 붓다님 법

만나옵기 어렵건만

제가 이제 받아 지녀

참된 의미 깨치리다.

「옴 아라남 아라다」 [삼편]

# 신묘장구대다라니

不空 譯(「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 T20)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알야 바로기데새바라  
야 모디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까리  
다바, 이맘 알야바로기데새바라 다바, 니라간타 나  
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  
아예옴, 살바 보다남 바바 말아 미수다감, 다냐타,  
옴, 아로계, 아로가마디, 로가디가란데, 헤헤 하례,  
마하 모디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 구  
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 도로 미연데 마하미연  
데, 다라 다라 다린나례새바라, 자라 자라 마라 미  
마라, 아마라 몰데, 예헤헤 로계새바라, 라아미사  
미나사야, 나베사미사 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 미나  
사야, 호로 호로 마라, 호로 하례, 바나마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다 못다 모다야 모다  
야,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  
야 마낙 스바하, 싯다야 스바하, 마하싯다야 스바하,  
싯다유예새바라야 스바하, 니라간타야 스바하, 바라  
하목카 싱하목카야 스바하, 바나마 하따야 스바하,

자가라옥다야 스바하, 상카 섭나 네모다나야 스바  
하, 마하 라구타 다라야 스바하, 바마 사간타 니샤  
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스바하, 마가라 잘마 니바사  
나야 스바하,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 나막 알아 바  
로기데새바라야 스바하」 [삼칠펜]

‘옴 싯던도 만다라 바타야 스바하’

[97쪽 예불참회문]

## 불설아미타경

鳩摩羅什 譯(『佛說阿彌陀經』, T12)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붓다께서 천이백 오십 인의 많은 비구와 함께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널리 알려진 아라한 대종인 장로 사리불, 마하목건련, 마하가섭, 마하가전연, 마하구치라, 리바다, 주리반타가, 난다, 아난다, 라후라, 교범바제, 빈두로파라타, 가루다이, 마하겁빈나, 박구라, 아니루타와 같은 제자들과 문수사리 법왕자, 아일다보살, 건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 등의 보살들과 석제환인 등 수많은 천인이었습니다.

그때 붓다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십 만억 불국토를 지난 서쪽에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는 ‘아미타’라 불리는 붓다가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

사리불이여, 저 세계가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불리는 줄 아느냐? 그곳의 증생들은 고통이 없이 오직 즐거움만 받으므로 극락이라고 불린다. 또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는 일곱 겹의 난간과 일곱 겹의 나



망과 일곱 겹의 가로수가 다 금 은 청옥 수정의 네 가지 보석으로 장엄 되어 있어 극락이라 불리는 것이다.

또 극락세계에는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 물로 가득 찬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고, 그 연못 들레에는 금 은 청옥 수정의 네 가지 보석으로 된 네 개의 층계가 있으며, 그 위에는 금 은 청옥 수정 적진주 마노 호박으로 찬란하게 꾸며진 누각이 있다. 또 그 연못 속에는 푸른빛에서는 푸른 광채가, 누른빛에서는 누른 광채가, 붉은빛에서는 붉은 광채가, 흰빛에서는 흰 광채가 나는 수레의 바퀴만한 연꽃이 피어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결하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리불이여, 또 저 불국토에는 항상 천상 음악이 연주되고, 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으며, 밤낮으로 천상의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그 불국토의 증생들은 이른 아침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 다른 세계로 다니며 십 만억 붓다께 공양하고, 조반 전에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산책한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

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오근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팔정도를 노래하는 백학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가 공명조 등 아릅답고 기묘한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진 새들이 있다. 그 나라 중생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 붓다를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청정한 승가를 생각하게 된다.

사리불이여, 그때는 이 새들이 죄업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엇 때문인가? 저 불국토에는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가 없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그곳에는 지옥이라는 말조차도 없는데, 하물며 그런 것이 실제로 있겠느냐. 이 같은 새들은 아미타불께서 모두 법문을 펴기 위해 화현으로 만든 것이다.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에서 미풍이 불면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나망에서 백천 가지 악기가 합주 되는 듯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붓다를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승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된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리불이여, 저 붓다를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느냐? 저 붓다의 광명이 한량없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결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사리불이여, 저 붓다와 저 나라 인민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승기겁이라 아미타불이라 한다. 아미타불이 붓다가 된 지는 벌써 십 겁이 더 지났다.

또 사리불이여, 그 붓다에게는 어떠한 수 단위로도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라한 성문 제자들이 있으며, 보살 대중의 숫자도 그러하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뤄져 있다.

또 사리불이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보처에 오른 이들이 많아서 어떤 숫자와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고, 다만 무량무변 아승기라고 표현할 뿐이다.

사리불이여, 이 법문을 들은 중생들은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서원해야 할 것이니, 까닭이 무엇이나. 으뜸가는 여러 성현과 함께 그곳에서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작은 선근의 복덕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 수 없다.

사리불이여, 아미타불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되,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가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거룩한 분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생각이 뒤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마치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사리불이여, 나는 이러한 도리를 알고 이와 같은 설법을 하는 것이다. 이 법문을 듣는 이들은 누구나 저 국토에 가서 나기를 발원해야 할 것이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는 것처럼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등 수없는 붓다께서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그대들은 모든 붓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고 보호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법문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설법하고 계신다.

사리불이여, 남방세계에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  
염전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수없는 붓다께서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그대들은 모든 붓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고 보호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법  
문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설법하고 계신다.

사리불이여, 서방세계에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  
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살불 정광불 등 수없는 붓다께  
서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그대들은 모든 붓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고 보호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법문  
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설법하고 계신다.

사리불이여, 북방세계에도 염전불 최승음불 난저  
불 일생불 망명불 등 수없는 붓다께서 각기 그 세계  
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  
로 ‘그대들은 모든 붓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고 보  
호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법문을 진심으  
로 믿으라’고 설법하고 계신다.

사리불이여, 하방세계에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 등 수없는 붓다께서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

씀으로 ‘그대들은 모든 붓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고 보호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법문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설법하고 계신다.

사리불이여, 상방세계에도 범음불 수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전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전일체의불 여수미산불 등 수없는 붓다께서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그대들은 모든 붓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고 보호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법문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설법하고 계신다.

사리불이여, 이 법문을 가리켜 어찌하여 모든 붓다께서 한결같이 보호하는 법문이라 하는 줄 아느냐? 사리불이여, 만일 이 법문을 듣고 받아 지나거나 붓다의 이름을 듣는 선남자선여인은 붓다들의 옹호함을 입어 ‘위없는 정등각’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그대들은 내 법문과 여러 붓다의 법문을 믿고 지녀야 한다.

사리불이여, 만일 아미타불 세계에 가서 나기를 이미 발원하였거나 지금 발원하거나 혹은 장차 발원하는 사람은 위없는 정등각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혹은 장차 날

것이다. 그러므로 신심이 있는 선남자선여인들은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원해야 한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여러 붓다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듯이, 저 붓다들도 ‘석가모니 붓다께서 어렵고 희유한 일을 하시니, 시대가 흐르고, 천해가 흐르고, 번뇌가 흐르고, 증생이 흐르고, 생명이 흐린 사바세계의 다섯 가지가 혼탁한 세상에서 위없는 정등각을 얻고 증생들을 위해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고 계신다’고 하며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실 것이다.

사리불이여, 내가 이 다섯 가지가 혼탁한 세상에서 갖은 고행 끝에 위없는 정등각을 얻고, 모든 세상과 증생을 위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붓다께서 이 경전을 설하시자 사리불과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이 붓다께서 설하신 법문을 듣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97쪽 예불참회문]

#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 같은 지혜 완성(피안)의 경

鳩摩羅什 譯(「金剛般若波羅蜜經」, T8)

이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붓다께서 천이백오십 명의 비구들과 함께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공양 때가 되자, 세존께서는 가사와 발우를 지니시고 탁발을 위해 사위성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차례대로 탁발하시고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와서 공양을 마치고, 가사와 발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두 발을 씻으신 다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속에 있던 장로 수부티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공경히 합장하며 붓다께 말씀드렸습니다.

[수부티]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호념하며,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깨달은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선여인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조복 받아야 합니까?”

[붓대] “좋다, 좋다, 잘 말했다. 수부티여, 그대 말처럼 여래는 모든 보살을 잘 호념하며, 잘 부촉한다. 그대를 위해 설하리니 잘 들어라.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선여인은 이같이 머무르고, 이같이 마음을 조복 받아야 한다.”

[수부티] “예, 세존이시여” 하며 기쁘게 듣고자 하였습니다.

[붓대] “모든 보살마하살은, ‘알에서 나는 것, 태에서 나는 것, 습기에서 나는 것, 화현하여 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 인식작용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인식작용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일체 증생을, 나는 남음 없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들게 하리라.’ 이같이 셀 수 없고 한량없는 증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완전한 열반에 든 자는 참으로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조복 받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수부티여, 만일 보살에게 아상·인상·증생상·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또 수부티여, 보살은 법의 경계에 머물림 없이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소리  
· 향기 · 맛 · 촉감 · 마음의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는 것’이다. 수부티여, 보살은 이같이 보시  
하여 겉모양인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  
시한다면, 그 복덕은 양을 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부티여, 동쪽 허공의 양을 쟈 수 있겠느냐?”

[수부티]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붓대] “수부티여, 남 · 서 · 북방과 사유, 위 · 아래 시  
방의 일체 세계 허공의 양은 쟈 수 있겠느냐?”

[수부티]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붓대] “수부티여, 보살이 상에 머물림 없이 보시하는  
복덕 또한 그 양을 쟈 수가 없다. 수부티여, 보살은  
오직 가르침과 같이 머물러야 한다.”

“수부티여, 32상이 갖춰진 몸매로써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수부티]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매로는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여래께서 설하신 몸매는 곧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붓다] “몸매라 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만일 32상이 갖춰진 제상과 32상이 없는 비상을 바로 보면 여래를 볼 수 있다.”

[수부티] “세 존이시여, 미래 정법이 쇠퇴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는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붓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여래가 멸한 뒤 다섯 번째 백 년에도, 이 법문에 잘 믿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이를 진실한 것으로 삼아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붓다, 두 붓다, 서너 다섯 붓다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붓다의 자리에 온갖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법문을 듣는 즉시 오직 일념으로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들임을 알지어다.

수부티여, 여래는 이 모든 중생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쌓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것이며, 법의 상도 없으며, 법의 상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일 마음에 상이 일어난다면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법의 상이 일어나도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법이 아니라고 하는 상이 생겨난다면 그것도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뜻에서 ‘나의 법문이 뗏목의 비유와 같다는 것을 아는 그대 비구들은, 법도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라!’라고 늘 여래는 설하였다.

수부티여, 여래가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느냐? 여래에게 설해진 법이 있느냐?”

[수부티] “제가 붓다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위없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해질 법이 없으며, 여래에 의해 설해졌다고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여래에 의해 설해진 법은, 모두 잡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법도 아니요, 법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체 성현들은 다 무위법으로써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 “수부티여,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사람이 쌓게 되는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

겠느냐?”

[수부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까닭은 복덕은 곧 복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여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붓대] “이 법문 가운데 사구 계송 하나만이라도 배워 남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의 복은 앞의 사람이 지은 복덕을 뛰어넘을 것이다.

수부티여, 일체 붓대와 모든 붓대의 위없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법이 모두 이 상을 타파하라는 법문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수부티여, 불법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수부티여, 성자의 흐름에 든 수다원이 ‘나는 예류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부티]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 말해지지만, 그는 들지 않았으며, 형상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의 어떤 대상에도 든 적이 없으므로 수다원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붓대] “수부티여, 한 번만 더 돌아올 사다함이 ‘나는 일래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부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다함은 ‘한 번만 더

돌아올 자'라 말해지지만, 참으로 한 번만 갔다왔다는 것이 없으므로 사다함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붓대] “수부티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나함이 ‘나는 불환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부티]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나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자’라 말해지지만, 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없어 아나함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붓대] “수부티여,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부티]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라 말해질 법이 참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 인 증생 수자’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붓대께서는, 제가 다름 없는 삼매에 머무는 자 중에서 가장 으뜸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욕망을 여윈 제일 아라한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윈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 ‘수부티는 아라나행을 좋아하는 자이다, 수부티는

참으로 끌림이 없으므로 수부티는 아란나행을 좋아한다고 말해질 수 있다'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붓대] “여래가 과거 연등불 회상에 있을 때, 법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있느냐?”

[수부티]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불 회상에 계실 때, 법에 대하여 참으로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붓대] “수부티여,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수부티]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므로 장엄한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붓대] “수부티여,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같이 머뭇지 않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어떤 형상에 머뭇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머뭇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어떤 것에도 머뭇지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수부티여, 몸이 수미산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부티] “매우 큼니다, 세존이시여. 붓다께서는 ‘몸은 몸이 아니므로 큰 몸이라 말해질 수 있다’고 설하셨

습니다.”

[붓대] “수부티여, 강가[恒河江] 강의 모래알 수와 같은 강가 강이 있다면, 그 강가 강의 모래알의 숫자가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부티]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강가 강만 하여도 셀 수 없거늘, 하물며 모래의 숫자이겠습니까?”

[붓대] “수부티여, 강가 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삼천대 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보시하는 선남자선여인이 쌓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

[수부티]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붓대] “선남자선여인이 이 법문에서 사구 계송만이라도 배워 마음에 간직해서 다른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쌓게 되는 복덕은 앞에서 말한 사람의 복덕을 뛰어넘을 것이다.

수부티여, 이 법문이나 사구계만이라도 설해지는 그곳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기꺼이 공양하는 붓대의 탑묘(塔廟)와 같은 곳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니라. 하물며 이 법문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임에라.

수부티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할 것이며, 이 경전이 설해지는 곳이 붓다가 머무는 곳이 되며, 존경받는 붓다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부티여, 셀 수 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사람이 쌓게 되는 공덕보다, 이 경의 네 구절 게송만이라도 마음에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보살의 마음을 낸 선 남자선여인이 쌓게 되는 복덕이 더 뛰어날 것이다.

어떻게 남들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어떤 상도 취하지 않으며 여여(如如)하여 어떤 상에도 끌리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형성된 것은 참으로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부티]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이라 칭하는지요?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좋을는지요?”

[붓다] “이 법문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름으로써 그대들은 마음에 간직하여라.”

붓다께서 이 경전의 설법을 마치시자, 장로 수부  
티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들과 일체 세  
간의 천·인과 아수라 등이 붓다의 법문을 듣고 모  
두 크게 기뻐하며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였습니다.

[97쪽 예불참회문]

## 관세음보살보문품

鳩摩羅什 譯(『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T9)

그때 무진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공손히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붓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불리는지요?”

[붓대] “선남자여, 만일 온갖 괴로움을 받는 한량없는 백천 만억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고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가 큰불 속에 빠지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때문에 어떤 불도 태우지 못할 것이며, 큰물에 떠내려가게 되었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만일 금, 은, 유리, 자거, 마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얻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간 백천 만억 중생이, 큰 폭풍우를 만나 그 배가 뒤집혀 나찰(羅刹)

귀신의 나라로 가게 되었다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모두 나찰의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관세음이라 말해지는 것이다.

또 해침을 입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오히려 해치려는 이들의 칼과 몽둥이가 산산이 부서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온 세계에 가득 찬 야차, 나찰이 몰려와 사람들을 괴롭히려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 부르는 것을 듣게 되면 저 악귀들은 감히 나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할 것인데, 어찌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또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에 채이고 쇠사슬로 형틀에 몸이 묶이게 되었다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만일 귀중한 보물을 지닌 상인들이 흉악한 도적들이 가득한 험한 길을 지나게 되어 두려움이 떨 때, 그중에 누구 한 사람이 ‘벗들이여,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릅시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흉악한 도적들의 수증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할 것을) 제안하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나모관세음보살' 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은 곧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무진의 여, 관세음보살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은 이같이 크다.

음란한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생각하면 문득 음욕심을 여의게 되며, 설령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생각하면 문득 진에심을 여의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염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된다.

무진의 여, 관세음보살은 이같이 크고 거룩한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관세음보살을) 칭명해야 한다.

아들을 낳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공양하며 칭명하는 여인은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딸을 낳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단정하고 용모가 빼어난 딸을 낳을 것인데, 그들은 전생에 선근(善根)을 심어 뭇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다. 무진의 여, 관세음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힘이 있다.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칭명하면 그 복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니, 중생들은 관세음보살 명호를 (마음속에) 받아 지녀야 한다.

무진의여, 만일 육십이억 항하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와 구와 의약으로 공양하면 이 선남자선여인의 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무진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붓다] “만일 또 관세음보살 명호를 받아 지닌 이나 혹 잠시라도 예배·공양하는 이의 복은 똑같아서 조금도 차이가 없고 백천 만억 겁이 지나도록 다함이 없을 것이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명호를 받아 지니면 이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무진의]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사바세계에 다니며, 중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하고,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하옵지요?”

[붓다] “선남자여, 만일 극도에 붓다의 몸으로써 제도될 중생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은 곧 붓다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

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범천왕(梵王)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며, 제석천왕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한다.

(또) 자재천왕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자재천왕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며, 대자재천왕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하늘대장군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하늘대장군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며, 비사문천왕(毘沙門)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비사문천왕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작은나라임금(小王)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작은나라임금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한다.

(또) 장자(長者)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거사(居士)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며, 재상(宰官)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재상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

한다.

(또)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장자·거사·재상·바라문의 부녀(婦人)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그들의) 부녀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며, 사내아이·여자아이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사내아이·여자아이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한다.

(또) 천·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의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다 그들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한다. (또) 집금강신(執金剛神)의 몸으로써 제도될 자에게는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한다.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써, 모든 국토에 거닐면서 증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한다. 관세음보살마하살은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준다.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 보살을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라 부르는 것이다.”

[무진의]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께 공양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온갖 보주의 영락으로 꾸미어 값이 백천 냥 금에 해당하는 것을 목에서 풀어 바치며, 말씀드렸습니다.

[무진의] “어지신 이여, 이 진주 보배영락을 받으소서.”

그때 관세음보살이 받으려 하지 않자, 무진의는 다시 관세음보살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진의] “어지신 이여, 법보시하는 진주 보배 영락 받으소서.”

[붓대] “무진의보살과 사부대중과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가없이 여저 그 영락 받으시라.”

관세음보살은 즉시 모든 사부대중과 천·용의 사람 아닌 사람들을 가없이 여저 그 영락 받아 두 뭇으로 나누어 한뭇은 석가모니 붓다께 올리고, 또 한뭇은 다보붓다의 탑에 올렸습니다.

[붓대]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같이 자재롭게 신통력으로 사바세계에 다닌다.”

[무진의]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거듭하여 여쭙습니다.

관세음은 어떠한 인연으로써  
관세음보살이라 불리나이까?”

좋은 상호 갖추신 세존께서는  
계송으로 물음에 답하시었다.

[붓대 “들을지니, 관음의 거룩한 행은  
모든 곳에 묘하게 잘 응하시니

크고 깊은 바다 같은 그 서원들은  
영원토록 생각해도 다 못 하리라  
천억의 수많은 붓다 모시며  
거룩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그대 위해 간략히 설명하리라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마음에 헛되이 잊지 않으면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염불 행자 해치려는 이에 의하여  
불구덩이에 밀리어 빠질지라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염한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 연못 되리라.

큰 바다에 빠져서 떠돌게 되어  
악룡이나 귀신들의 재앙 만나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염한 힘으로  
센 파도도 빠뜨리지 못할지니라.

높고 험한 수미산 봉우리에서  
악인에게 떠밀려 떨어졌으나  
관음보살 위신력을 염한 힘으로  
허공의 해와 같이 머물게 되리.

해치려는 나쁜 사람 피하려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추락하여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염한 힘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되리라.

도적 떼나 원수가 둘러싸고서  
칼로써 해치려고 덤빌지라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염한 힘으로  
오히려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나라의 어려운 고초를 만나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더라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염한 힘으로

오히려 형벌 칼이 부서지리라.

잘못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어  
손발에 수갑 족쇄 채워졌어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얽한 힘으로  
홀연히 풀려나 자유 얻으리.

저주나 갖가지 독약으로써  
그 몸을 해치려는 자가 있어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얽한 힘으로  
도리어 화액이 그에게 가리.

악독한 나찰을 만났다거나  
독한 용, 가지가지 귀신 만나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얽한 힘으로  
염불행자 해치지를 못할 것이라.

사나운 짐승들에 둘러싸이어  
날카로운 이빨 발톱 두렵더라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얽한 힘으로  
재빨리 아주 멀리 달아나리라.

도마뱀, 독사, 전갈 같은 독충이  
독한 기운 불꽃 연기 뿜어대어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염한 힘으로  
염불 소리 듣고는 물러가리라.

천둥소리 번개 빛 요란하거나  
우박과 큰 비가 내릴지라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염한 힘으로  
일시에 흠어져 사라지리라.

중생이 뜻밖의 재앙을 당해  
한량없는 고통에 찌박당해도  
관음보살 신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의 온갖 고통 면케 해주리.

갖가지 신통력 두루 갖추고  
지혜의 방편력 널리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 어디에든지  
그 몸을 나타내지 않은 곳 없네.

갖가지 악한 업의 과보로 인해  
지옥, 아귀, 축생도서 받아야 하는  
생로병사 일체의 괴로움들을  
점차로 모두 다 없애 주리라.

참되고 청정한 눈으로 보고  
크고 넓은 지혜의 눈으로 보고,  
연민과 우애의 눈으로 보니  
늘 바라고 우러러 사모하여라.

때 묻지 않은 맑고 깨끗한 빛은  
지혜의 태양처럼 어둠을 깨고  
재앙의 불 바람을 굴복시키며  
세간을 널리 밝게 비추느니라.

대비 몸에 계의 우레 진동하여서  
인자한 마음의 구름 일우고  
감로의 법 비를 내려주어서  
번뇌의 불길을 끄게 하리라.

옳고 그름 가리는 재판정이나  
무섭고 두려운 싸움터서도  
관음보살 위신력을 얽한 힘으로  
원수들은 흩어져 물러가리라.

바른 음성, 세간을 살피는 음성,  
범천 음성, 바다 물결 같은 음성은  
세속의 음성을 뛰어넘으니

언제나 생각하고 간직하여라.

생각하고 간직하되 의심치 말라  
관세음은 거룩한 대성인이라  
고뇌와 죽을 재액 닥치더라도  
염불행자 그대들의 의지처 되리.

일체 모든 거룩한 공덕 갖추어  
자비스런 눈으로 중생 살피는  
바다처럼 한량없는 복 지녔으니  
그대들은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그때에 지지보살(持地菩薩)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붓다 앞에 나아가 사퇴어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보살] “세 존이시여, 만일 이 관세음보살의 자유자  
재한 행위와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 설법하는神通  
력을 듣기만 하는 중생의 공덕도 적지 않음을 알겠  
습니다.”

붓다께서 보문품을 말씀하시자, 대중 가운데 팔  
만 사천 중생이 모두 비할 데 없고 위없고 바른 깨  
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97쪽 예불참회문]

# 보현행자의 실천과 서원

般若 譯(「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T10)

## 1. 서분(序分)

붓다는 끝없는 하늘이고, 깊이 모를 바다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청정공덕을 햇살처럼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집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또한 온 겨레, 온 중생 가슴속에 한없이 한없이 고루 부어주십니다.

온 중생, 온 세계, 온 우주는 붓다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감싸여 있습니다. 붓다의 거룩하신 은혜는 나의 생명과 우리 국토, 온 세계에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붓다의 은혜로운 공덕을 받고서 태어났으며, 은혜로운 공덕을 받아쓰면서 생활합니다. 온 중생은 모두가 일찍이 축복받은 자이며, 일찍이 거룩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서 거룩한 삶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광명과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를 중생이라 하였습니다. 저들은 지혜의 눈이 없다고 하기보다 착각을 일으켜 육체를 자기로 삼고, 듣고 보는 물질로써 세계를 삼으며, 거기서 얻은 생각으로 가치를 삼고, 그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중생 세계는 겹겹으로 장벽에 싸여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막혀 있으며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잠겨 지



냅니다.

이 모두가 미혹의 탓이며 착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그릇 인정한 데에 기인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토는 원래 붓다의 공덕이 넘쳐 있습니다. 설사 중생이 미혹해서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더라도 실로 우리와 우리의 국토가 붓다의 광명국토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광명과 거룩한 공덕이 영원히 변함없이 이 세계를 감쌌고, 그 속에 온 중생이 끝없는 은혜를 지닌 채 약여(躍如)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눈에 어떻게 나타나 보이더라도, 이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붓다의 무량공덕장 세계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온 세계 가득히 넘쳐 있는 거룩한 공덕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신 대보살과 중생들이 붓다의 거룩하신 마음속에 하나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일체중생의 본성이 불성이므로 온갖 중생의 생명이 붓다의 공덕생명임을 믿으며, 중생들이 참 생명을 믿고 구김이 없이 씬으로써 한량없는 새로운 창조가 열리는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신 십종행원은 붓다의 무량공덕을 우리의 현실 위에 발휘하는 최상의 지혜행입니다. 행원을 실천하는 데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위에 생명의 참가치가 구현되며, 우리 국토 위에 공덕 장엄이 구현됩니다.

보현행원은 붓다의 무량공덕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 가지

문은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한 가지를 행하여도 붓다의 온전한 공덕은 넘쳐 나옵니다. 행원의 실천은 우리가 자기 생명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 가득히 부어져 있는 붓다의 공덕을 발휘하는 거룩한 기술입니다. 나의 생명을 붓다의 태양 속에 바로 세우는 일이며, 내 생명에 깃든 커다란 위력을 퍼내는 생명의 숨결이며, 박동(拍動)입니다.

그러므로 행원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공덕을 바라거나, 붓다의 은혜를 바라거나, 이웃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내지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행원 자체가 목적입니다. 행원은 나의 생명의 체온이며 숨결인 까닭에 나는 나의 생명이 다하도록 행원으로 살고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행원으로 나의 생명은 끝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출렁대는 바다의 영원과 무한성을 생명에 받으며, 무가보(無價寶)가 흐르는 복덕의 대하(大河)가 생명에 부어집니다.

나의 참 생명의 파동이 행원이므로 나의 생명이 끝이 없고 영원하듯이 나의 행원도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 행원은 다함이 없습니다.

보현행원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노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울동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환희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위덕이며, 체온이며, 광휘이며, 그 세계입니다.

나는 이제 불보살님 전에 나의 생명 다 바쳐서 서원합니다. 보현행원을 실천하겠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이루겠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불국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대자대비 세존이시여, 이 서원을 증명하소서.

## 2. 예경분(禮敬分)

붓다께 예경하겠습니다. 일체 세계 일체 국토에 계시는 미진수(微塵數) 붓다께 예경하겠습니다.

혹은 보살의 몸으로, 혹은 부모의 몸으로, 혹은 형제나 착한 이웃으로 나타내시고, 혹은 거친 이웃이나 대립하는 이웃으로 나타나시는 자비하신 붓다께 빠짐없이 예경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나게 나를 대해 오고, 아무리 억울하고 다시 어려운 일을 나에게 몰고 오더라도, 거기서 자비하신 붓다를 보겠습니다. 나를 키우시려는 극진하신 자비심에서 나의 온갖 일을 다 살피주시고, 천만 가지 방편을 베푸시어 자비하신 은혜로 나를 대해 오시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붓다, 비록 형상과 나타냄이 아무리 거칠더라도 진정 극진하신 자비심을 깊이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붓다를 공경하겠습니다. 온갖 방편 다 기울여서 영원한 미래가 다하도록 예경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이웃과 벗, 온 겨레와 중생이 모두 다 붓다 아니신 분이 없으십니다. 끝없고 한없는 공덕을 갖추지 않으신 분 없으십니다. 이 모든 거룩한 임께 나는 지극정성 다해 예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이 국토, 이 질서 속에서 이와 같은 불성(佛性) 인간의 존엄과 신성이 보장되고 그가 지닌 지고(至高)한 가치와 능력과 덕성이 발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3. 찬양분(讚揚分)

모든 붓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붓다의 대 지혜와 대자비의 끝없는 큰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붓다께서 지니신 거룩한 서원력은 일체 세계, 일체 시간을 덮고 있어 나는 온갖 지혜, 온갖 힘을 다 기울여도 그 작은 부분조차 생각할 수 없으니 오직 있는 정성 모두 바쳐 끝없는 서원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체중생 모두가 또한 붓다의 공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일체중생이 갖춘 그 모든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겉모양이 비록 가지가지 중생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허망한 그림자이며 나를 위한 방편 시현이십니다. 실로 모든 중생이 진정 중생이 아니며, 붓다의 거룩하신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하고 온갖 능력 다 갖추었으며 온갖 공덕 다 이루어 원만하고 자재하니 이것이 일체중생의 참모습입니다.

나는 이 모든 중생과 그가 지닌 한량없는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중생이라 낮춰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거나, 어리석다고 하거나, 무능하다 하거나, 불행하다 하거나, 앞날이 밝지 않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붓다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일체중생이 원만한 덕성임을 믿으며 그 모두를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붓다는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므로, 부모님이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이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나 벗이나 같은 겨레가 되어, 언제나 끝없는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시며, 이 땅 위에 붓다의 광명 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큰 위신력을 떨치고 계심을 깊이 믿고, 저 모든 붓다를 미래세가 다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세계에 극미진수 붓다 계시고, 그 낱낱 붓다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하듯 정성 기울여 찬양하겠습니다.

중생과 세계의 나타난 현상이 아무리 거칠고 부정하게 보이더라도, 실로 실상은 청정하고 원만하오니, 나는 결코 중생과 세계의 실상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의 모습을 깊이 믿고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실상의 말이며, 참된 말이며, 올바르게 찬양하는 말임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믿고 찬양하는 참말은 위대한 성취력을 지니며 창조의 힘을 나타냄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닦는, 찬양하는 행원은 이것이 이 세상에 평화와 번영과 청정과 협동을 실현하는 심묘한 작법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찬양하는 행원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세계에 실상 공덕을 구현하겠으며 우리가 바라는 보살의 국토를 성취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낱낱 소망을 성취하겠습니다.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으니, 나는 참된 말을 바로 써서 말의 위력을 실현하겠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며, 참된 말만을 하겠습니다. 결코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참모습이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며, 원만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재천녀는 차라리 미묘한 말과 음성을 내겠지만 나는 그보다

도 참된 말을 하고 붓다의 참된 공덕세계를 믿고 긍정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 4. 공양분(供養分)

널리 공양하겠습니다. 시방세계 일체에는 미진수 붓다가 계시고 한량없는 보살들이 함께 계심을 깊이 믿으며 눈앞에 대한 듯 분명한 지견으로 모든 불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음식으로 공양하겠습니다. 꽃과 향과 음악과 의복과 의약과 방사와 그 밖의 모든 공양구로 항상 공양하겠습니다.

공양은 이것이 붓다께서 주신 무량한 복덕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나는 간탐심과 애착심으로 인해 참된 공양을 하지 못하였고, 설사 약간의 공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유와 조건을 붙인 공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보는 가난하고 물질생활에서 부자유하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아낌없이, 바람 없이 지성껏 공양하겠습니다. 정성 바쳐 공양함으로써 애착과 간탐심의 작은 뿌리들을 하나하나 뽑겠습니다.

붓다의 무량 복덕이 우리 생명에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들이 모두 다 무너지도록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하겠습니다.

붓다께 공양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에게 공양하겠습니다. 붓다께 공양하듯 차별 없이 정성 다 바쳐서 공양하겠습니다. 나의 이 같은 공양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유스

럽게 만드는 모든 요인을 남김없이 타파하여 우리의 생명 위에  
붓다의 무량 공덕이 시원스럽게 물결쳐 흘러 들어오게 함임을  
믿습니다.

법공양에 힘쓰겠습니다. 붓다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  
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과 중생의 고통 대  
신 받는 공양과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과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을 닦겠습니다.

재물을 베풀어 공양하면 복덕의 종자를 심는 것이며, 복덕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중생의 육체 생명을 키워주는 소중한 조  
건입니다. 그러나 법공양을 행하면 행하는 자와 공양받는 자가  
다 함께 법신 생명이 성장하오며 무량한 법신 공덕이 넘쳐오고  
그 국토에 찬란한 법성 광명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공양  
을 행하는 공덕이 얼마만 한지 붓다께서도 다 말씀하지 못하십  
니다.

붓다께서는 무엇보다 법을 존중히 하십니다. 법공양을 행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행하면 이 세상에 곧 붓다가 출생하십니다. 법  
이 붓다이며, 법은 추상적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바  
른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공양이 참된 붓다 공양  
이며, 이로써 일체 붓다께 참된 공양을 성취합니다.

법공양을 행함은 일체 불보살의 바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공양을 행하면 보리의 싹이 자라고, 무량한 공덕문이 열리며,  
중생이 성숙 되고, 국토가 맑아지오며 제불 보살이 환희하십니  
다.

나는 이 생명을 법공양으로 빛내겠습니다. 부모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공양하겠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모든 동포 모든 인류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이 생명 영원하고 청정함과 같이 영원히 법공양을 행하겠습니다.

## 5. 참회분(懺悔分)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기나긴 과거세에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햇빛보다 밝은 참 성품을 어기고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기나긴 과거세에서 금생에 이르는 동안 미혹하고 어리석어 성내고 탐욕 부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에만 있을 뿐, 행이나 말로 나타내지 아니한 죄도 또한 많이 지었습니다. 그간에 지은 죄는 알고 짓거나, 모르고 범한 죄도 있으며, 지은 죄를 잊은 것도 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가 만약 형상이 있다면 허공으로 어찌 용납할 수 있으리까? 이제 불보살님 앞에 머리 조아려 참회합니다. 영영 다시는 짓지 않을 것이며 영원토록 청정자성을 행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나의 밝은 자성 드러내어 살펴보면, 내가 지난날 지은 죄업들은 자성 앞에 가로놓인 한 조각 구름이며, 한 가닥의 안개인 듯합니다. 내 이제 청정한 삼업에 돌아가 모든 불보살님 전에 거듭 지성으로 참회합니다.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영영 청정한 일체 공덕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죄업은 이것이 어둠이며, 참회는 이것을 밝은 자성 광명 앞에 드러냄입니다. 찬란한 자성 광명 앞에 어찌 사라지지 않을 어둠이 있으리까. 밝음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나의 참회 앞에 모든 죄업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죄업이 사라졌는데 다시 어찌 청정한 자성 광명을 가로막을 것이 있으리까. 참회하였으므로 죄업이 사라지고 모든 죄업이 소멸하였으니, 나의 생명에는 끝없는 붓다의 자비 공덕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나는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죄지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흘러간 구름을 쫓지 않겠으며, 지나간 어둠을 마음속에 붙들어 놓지 않겠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 항상 맑은 마음, 항상 활기찬 마음으로 일체 공덕을 실천하겠습니다. 끝없는 청정행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때 없는 맑은 눈으로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듯이 보이는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고 나의 허물임을 알겠습니다.

원래 마음밖에는 한 물건도 없는 것이나 어찌 내 마음의 허물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사오리까? 밖에 나타나 보이는 허물은 내 마음속에 깃든 어두운 그림자의 나타남임을 알고 다시 참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고난과 장애를 당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나타남으로써 업장을 소멸하고, 참회하여 소멸할 수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용기를 내겠습니다.

## 6. 수희분(隨喜分)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붓다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무상지(無上智)를 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을 때,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무한 겁이 다하도록 난행고행하면서, 가지가지 바라밀문(波羅蜜門) 닦으신 그 모든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가지가지 보살도를 원만히 닦고 마침내 무상도를 성취하며,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를 분포하시는 그 모든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또한 시방 일체 세계에 있는 사생(四生) 육취(六趣) 모든 종류 중생이 짓는 털끝 하나 만한 공덕이라도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시방세계 보살과 성자와 스님들이 닦는 온갖 공덕을 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일체중생 어떤 종류의 중생이 짓는 공덕이라도 극진히 존경하겠거늘 하물며 보살이 닦는 행하기 어려운 여러 수행이리까! 가지가지 난행고행으로 무상도를 이루며, 모든 중생에게 가르치고, 또한 나의 올바른 행의 표본이 되며,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나아가 불국토를 성취하는 그 모든 높은 공덕을 남김없이 찬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찍힌 사람일지라도 그가 행하는 착한 공덕이 또한 한이 없음을 믿고, 그가 행한 작은 공덕이라도 진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해치려 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거나, 또는 때리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닌 공

덕을 찬탄하고 그가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중생과 나는 원래가 한 몸이기에 그중에 어느 하나가 지은 공덕은 바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기뻐함으로써, 넓고 큰 기쁨이 너울 치는 큰 생명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할 때 남과 나는 둘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 세간 누구와도 대립할 자는 없고 불화할 사람도 없으니, 이 천지 누구와도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존중하겠습니다.

화합하지 아니함은 대립한 것이요, 두 쪽이 된 것이며 은혜를 주신 수많은 불보살님과 담을 쌓고 적을 짓는 것이 됩니다. 설사 붓다께 공양하고 붓다를 받들어 섬기며 경전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나 부부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 밖의 벗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붓다께 올리는 공양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과 한마음이 되고, 존경하고 아끼고 함께 기뻐할 때 불보살님께 올리는 공양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붓다는 일체를 초월한 불이(不二)로 계시며, 일체중생을 하나로 하신 곳에 계십니다. 일체와 화합하고 일체와 둘이 아님을 쓰는 데서 저희는 붓다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는 것은, 진정 그와 더불어 마음을 함께함입니다. 나는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함으로써 거기에서 붓다께서 주시는 자비하신 은혜를 받을 마음 바탕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이같이 한마음이시며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붓다께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바로 화목이며 둘이 아님을 이루는 것이므로 나는 일체 중생에 감사하겠습니다. 한 몸임을 생각함 없이 한 몸의 완전을 도모하듯이, 둘이 아닌 경지에서는 결코 서로에 해침이 없습니다. 일체중생에 감사하여 둘이 아니며, 그의 승리, 그의 성공, 그의 공덕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 모두는 나와 더불어 한 몸이거니 어느 누가 나를 해치리까! 일체중생과 둘이 아닌 이 몸을 이루게 하는, ‘감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심심 미묘한 법을 나는 생명 다해 노래하고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 7. 청법분(請法分)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일체 세계 처처에 한량없는 붓다 계시니, 제가 그 모든 붓다께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 여러 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간의 영화가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잠깐이니 번개나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이라 믿고 의지할 곳이 아니니, 오직 붓다의 법만이 영겁의 보배이며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붓다의 법으로 중생은 대 해탈을 성취하며, 이 세계는 불국토로 바뀝니다. 이 법이 머무는 곳에 태양이 있는 것이고, 이 법이 숨었을 때 영겁의 어둠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 붓다의 법은 진리의 태양입니다. 오래오래 이 땅에 머물러서 영원토록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붓다의 법은 원래 있는 것이므로, 쇠(衰)하거나 성(盛)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붓다께서 나타나서 다시 더 한 법이라도 가히 보탬 것도 없으나 미혹한 중생들에게는 붓다의 말씀이 아닌들 어찌 영원한 감로의 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붓다의 설법을 통해서 비로소 제 앞에 불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있으므로 중생의 희망도 국토의 평화도 마침내 이룰 수 있습니다. 참되게 살고 싶어도 거짓과 다툼과 고통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생들이 불법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오니, 진실로 설법은 중생과 세계를 받들어 나아갈 가장 근원적인 지혜이며 힘입니다.

모든 붓다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모든 대보살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식과 스님들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설사 잠시라도 스님을 만나거나 잠깐이라도 삼보의 도량에 머물렀거나 한 장의 경전을 읽은 사람에게까지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제 몸과 제 말과 제 뜻을 다 바쳐서 설법을 청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평화가 영원하도록, 모든 중생이 환희하도록, 이들 모두를 가꾸고 키워주시는 감로의 법우(法雨)가 끊임없이 포근히 내려지도록 지극정성 기울여서 청하겠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스산하고,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필경 이 모든 불행과 악과 재난을 쓸어버리는 것은 오직 붓다의 법문뿐이오니, 대법문의 수레가 멈추지 않고 구르는 한 찬란한 아침 해는 밝아 오며, 구름을 몰아내는 한 가닥 바람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설법이 행해지는 데는 선지식이 계시고, 설법할 법당과 법을 설할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붓다께 죽림정사(竹林精舍)와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 있었듯이 법을 청할 대중과 설법할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화합하고 환희하며 서로가 힘을 합하여 법륜 굴리기에 힘쓴다면 설법은 더욱 우리같이 울려 퍼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감로법우(甘露法雨)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법륜이 영원토록 구르도록 정성 다 바쳐서 설법 환경을 가꾸겠습니다.

이 땅에 선지식이 나타나 법을 설하시는데 이를 비방하거나 모임에 불참하거나 허튼 말을 돌려서 불목하게 한다면 이것은 법륜이 구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나는 선지식께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항상 법을 배우는 거룩한 무리와 그 모임을 환희 찬탄하며, 법회가 열리는 곳이 비록 먼 곳이라 하더라도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찾아가 법을 청하며, 선지식과 그 모임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드날리겠습니다.

## 8. 주세분(住世分)

모든 붓다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모든 보살과 성문, 연각, 유학·무학, 일체 선지식에게 열반에 드시지 말고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붓다는 법계의 태양이시며, 선지식은 일체중생을 돕고 성숙시

킬 마지막 의지처입니다. 이 모든 성스러운 스승님께서서는 항상 밝고 맑은 청정한 법을 흘러내어 중생을 키워주시고 세계를 운 택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이 모든 붓다와 모든 선지식을 물 건너는 사람의 부낭(浮囊)과 같이 생각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세간의 안목으로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생명의 물줄기는 이들 성스러운 선지식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이 땅 위에 감로수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의 받이 영원하도록, 지혜의 태양이 영원히 빛나도록, 중생이 의지할 두려움이 없는 법력이 영원하도록, 나는 기원하며 모든 선지식에게 열반에 드시지 말고 오래도록 머물러 주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간청하겠습니다.

선지식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선지식께서는 붓다와 조사(佛祖)의 정지견(正知見)을 갖추셨으며, 마음에 상이 없고 항상 청정범행을 찬탄하십니다. 설사 내가 친하게 가까이해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내가 멀리하여도 원한이 없으시니, 나는 이 모든 선지식에게 목숨 다 바쳐 공양하고 섬기겠습니다.

선지식이 이 땅에 머무실 때 이 땅에는 안목이 있는 것이며,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은 지혜의 눈을 잃습니다. 선지식이 안계시면 중생들은 무엇으로 기나긴 미망의 밤을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거룩한 선지식을 모시고 있습니다. 맹세코 이들 모든 선지식을 공양하고 섬기면서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고 일체

불찰 극미진수겁(極微塵數劫)이 다하도록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겠습니다.

일찍이 유덕왕(有德王)이 각덕(覺德) 비구를 보호하고자 하여 스스로 신명을 바침으로써 아촉불국(阿閼佛國) 제일의 성문이 되었고, 마침내 그 호법 공덕으로 정각을 이루심과 같이 나도 또한 일체 선지식을 받들고 섬기어 거룩한 법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도록 힘쓰겠습니다.

## 9. 수학분(隨學分)

항상 붓다를 따라 배우겠습니다. 붓다의 견고하신 발심과 불퇴전(不退轉)의 정진을 배우겠습니다. 지위나 재산이나 명예나 내지 목숨까지도 보시하신 것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난행 고행을 닦고 보리수 하에서 대보리를 이루고,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키시던 일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붓다의 몸을 나타내거나, 보살 몸을 나타내며, 혹은 성문 연각의 몸을 나타내고, 성왕이나 학자나 정치가나 사업가나 혹은 무명의 거사신(居士身)을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천룡팔부 등 신들(神衆)의 몸을 나타내면서 저들의 모인 곳에 이르러 저들을 성숙시키던 일들을 다 따라 배우겠습니다.

붓다의 음성은 원만하시고 중생의 근기 따라 알아듣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번뇌를 쳐 없애고 지혜와 환희가 넘쳐나게 하시며 마침내 중생들이 기뻐함을 따라서 수행을 성취케 하시니 나는 그 모두를 따라 배우겠습니다.



붓다께서 열반을 보이심은 중생의 방만(放慢)을 여의게 하고자 하심이니 짐짓 열반상을 보이시나 실로는 입멸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중생들을 깨우치고 키워주시고자 온갖 방편 베푸시며 잠시의 쉽도 없는 그 모두를 따라 배우겠습니다.

붓다께서 발심하고 정진하고 고행하시고 대각을 이루시고 교화하시는 그 사이에 베푸신 측량하지 못할 무량 법문은 그 모든 것이 중생이 닦아야 할 표준을 보이심입니다. 청정한 자성을 구김 없이 온전하게 드러내는 과정과 방법을 보이심이니 나는 이 모두를 따라 배워서 본래의 다함이 없는 땅에 이르겠습니다.

누구나 중생이 된 몸에서부터 시작하여 번뇌의 몸, 업보의 몸 그 모두를 벗어나고 청정한 본법신(本法身)을 이루고자 하니, 붓다께서 행하신 그 모두는 배우고 의지하고 닦아 이를 위 없는 대도이며 묘법임을 깊이 믿고 지성 다해 받들어 배우겠습니다.

#### 10. 수순분(隨順分)

항상 중생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진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따르겠습니다. 태로 낳든, 알로 낳든, 출생의 차별 없이 따르겠습니다. 땅에 살든, 물에 살든, 하늘에 살든, 풀 숲에 살든, 마을에 살든, 궁전에 살든, 그 모든 중생을 따르겠습니다. 몸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의 수명이 길든 짧든, 나이가 많은 적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따르겠습니다.

종족이나 그가 속한 계급을 보지 않고 따르겠으며, 그의 심성

이 간악하든 질투하든, 넓은 좁든, 선하든 악하든 모두를 따르겠습니다.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거동과 형색이 아무리 괴이하더라도 다 한결같이 따르겠습니다. 형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빛깔이 있든 없든, 중생들을 다 따르겠습니다.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붓다와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병자에게는 어진 의사가 되고,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받들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생을 따름은 모든 붓다를 따름이 되며,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여래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중생이 환희심이 나게 하면 여래께서 환희하시게 함이오니, 나는 모든 중생을 붓다 대하듯이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붓다가 큰 나무라면 중생은 나무의 뿌리요, 보살은 꽃과 과실입니다. 나무뿌리에 물을 주면 어찌 지혜의 꽃과 과실이 무성하지 않을 것이며, 여래인 나무가 환희로 장엄하지 않으리까? 붓다께서는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시고, 대비심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발하시며, 보리심으로 인하여 정각을 이루신다고 하시니, 중생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김이 이 어찌 붓다를 받들어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이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원수이거나 친한 이나 차별이 없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러하니 어찌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와 이웃을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오리까? 이분들을 따르고 받들어 섬기면 보살의 나무는 무성하고 보리의 꽃과 과일(華果) 성취되며, 나의 생활 마당에 크나큰 공덕의 물결이 넘쳐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같이 따름을 배울 때 어찌 이 세상에 불화하고 불목하며 대립할 중생이 있사오리까. 저 중생들은 붓다께서 거두시며, 내가 회복해야 할 자기 생명의 내용입니다. 중생을 따르고 받들어 섬김은 곧 참된 자기의 성장이며, 원만성을 한층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요, 내 자성의 중생이오니, 저들을 받들고 따르며 공양하면 이것이 자기 제도며, 중생제도며, 제불 공양을 함께 하는 법공양이 아니겠습니까. 중생은 자성분별이요, 따름은 자성 청정의 실현이니, 최상의 보살의 행임을 믿습니다. 중생들에게 성숙하고 참된 이익을 주기 위하여 나는 부지런히 지혜를 닦겠으며, 다시 서원과 방편을 깊이 닦아 항상 모든 중생을 따르겠습니다.

## 11. 회향분(廻向分)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향하겠습니다. 붓다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붓다를 찬양하며, 또한 모든 중생을 따른 심성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

없이 회향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일체 병고는 영영 없  
어지이다.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됴이 없고, 선한 일을  
하려면 모두 이뤄지이다. 저들이 나아가는 곳에 일체 악취의 문  
은 모두 닫히고, 인간세계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길은  
활짝 열려 있어지이다. 저 모든 중생이 시작 없는 때부터 지어  
썩은 악업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되면 내가 다 대신  
받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해 무상보리 이뤄지이다.

내가 지은 공덕은 일체중생의 공덕이 되어 저들의 미혹한 마  
음이 활짝 밝아지오며, 불보살이 이루신 모든 공덕을 수용하고  
불국토의 청정 광명을 오래도록 누리지이다. 옛 불보살이 이러  
하셨으며 오늘의 불보살이 이러하심에 나의 회향도 또한 이러합  
니다.

[97쪽 예불참회문]

#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

鳩摩羅什 譯(K453, T12)

붓다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해서 아야교진여(阿若橋陳如)를 제도하고 최후의 설법으로 수밧드라(須跋陀羅)를 제도하셨습니다. 제도할 자를 다 제도하여 마치시고는 사라쌍수(娑羅雙樹) 사이에서 장차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밤은 고요하고 아무 소리가 없었으므로 제자들을 위해 법의 주요한 점을 간략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비구들이여, 내가 입멸한 후에 바라티목차(波羅提木叉)를 존중하고 진귀하게 여겨 공경해야 하리니, 어둠 속에서 광명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과 같이하라. 이것을 알면 이것이 바로 그대들의 큰 스승이며,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이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청정한 계를 지닌 자는 판매하고 무역하지 말고, 집과 논·밭을 마련하여 두지 말고, 사람이나 노비나 짐승을 기르지 말며, 일체 씨 뿌리고 재배하는 것과 모든 재물과 보배를 다 멀리하기를 불구덩이 피하듯이 하고, 풀과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고 토지를 개간하지 말고, 탕약을 짓거나 길흉(吉凶)을 점치거나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아 참과 이지러짐을 관측하거나 역수(曆數)로 운수를 헤아리고 맞히는 일은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몸을 소중히 하여 제때 맞춰 먹으며, 청정하게 스스로 생활하

고 세상일에 참여하여 명을 이어가지 말며, 주술을 부리거나 신선의 약을 구하지 말며, 귀한 이와 인연 맺기를 좋아하여 친한 이를 업신여기는 일은 모두 하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 단정히 하여 바른 생각으로 남을 제도하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거나 기이한 것을 나타내어 중생을 미혹시키지 말며, 네 가지 공양(음식·의복·침구·의약)에 있어서 분수에 만족할 줄 알아 공양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계율을 지니는 모양을 간략히 말한 것으로 계는 곧 바로 순한 해탈의 근본이라 ‘바라티목차’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계를 의지하면 모든 선정과 고통을 없애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청정한 계를 지녀서 범하여 무너뜨리지 말라. 만약 청정한 계를 지닐 수 있으면 곧 좋은 법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 청정한 계가 없으면 모든 좋은 공덕이 생길 수 없다. 계는 제일 안온한 공덕이 머무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그대 비구들이여, 계에 머물렀거든 오근(根: 감관)을 제어하여 방일하게 하여 오욕에 빠져들지 말게 하라.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살피서 소가 멋대로 날뛰어 남의 밭에 곡식의 싹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만일 오근을 제멋대로 놓아두면 오욕은 그 끝을 몰라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나운 말과 같아서 고삐를 제어하지 않으면 장차 사람을 끌어다가 구덩이에 떨어뜨릴 것이다. 강도의 해를 당하는 것은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치지만 오근 도적의 화는 그 재앙이 여러 생에 미치어

해가 되므로 매우 중하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까닭에 지혜 있는 이는 제어하여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도적을 붙잡듯이 잘 붙잡아야 하며 제멋대로 방일하지 않게 해야 한다. 가령 그것을 놓아두더라도 모두 머지않아 닳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오근은 마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잘 제어하라.

이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흉악한 짐승이나 인명을 해치고 재물을 겁탈하는 도적보다 심하니 큰 불길이 치솟는 것으로 그것을 비유할 수 없다. 또한 이리저리 가벼이 날뛰며 꿀만 보고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치 고삐 풀린 미친 코끼리 같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날뛰는 것과 같아 막고 제어하기 어렵다. 빨리 그것을 꺾어 방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멋대로 놓아두면 남의 착한 일을 상실하게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여 한 곳에 두면 무슨 일이고 처리하지 못할 것이 없다. 비구여, 부지런히 정진하여 그대 마음을 꺾어 굴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대 비구들이여, 음식을 받아먹음에 약을 먹듯이 하여 좋고 나쁜 것을 따라 더 먹고 덜 먹지 말고 얻어서 몸을 지탱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이나 없앨 것이다. 마치 꿀벌이 꽃을 찾을 때 다만 그 맛을 취할 뿐 빛과 향기는 손상하지 않는 것처럼 할지니, 남의 공양을 받음에 자기의 괴로움만 없앨 것이요, 많은 것을 구하여 그 선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라. 지혜 있는 이는 소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것인가를 헤아려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 힘을 다하게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대 비구들이여, 낮에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선법(善法)을 닦아 익혀 제때를 잃지 말며 초저녁과 새벽에도 그만두지 말고 한밤 중에도 경을 외워서 스스로 설 것이요, 수면의 인연으로 일생을 아무 소득 없이 보내지 말라. 무상(無常)의 불길이 모든 세간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빨리 자신을 제도하기를 구하여 잠자지 말라. 번뇌의 도적이 사람을 죽이려고 엿보는 것이 원수보다 심하니 어찌 편안히 잠들어 스스로 놀라 깨지 않겠는가?

번뇌의 독사가 너의 마음에 잠자고 있는 것은, 비유하자면 검은 까치 독사가 그대의 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계의 갈고리로 빨리 물리쳐 없애버려 수면의 독사를 쫓아낸 뒤에야 곧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요, 독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잠드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의 옷이 모든 장엄 가운데 제일이다. 부끄러움은 쇠갈고리와 같아 사람의 나쁜 잘못을 제어할 수 있으니, 비구들이여, 항상 부끄러워하여 잠시도 버리지 말라. 만약 부끄러워함을 여의면 모든 공덕을 잃는다.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곧 선한 법이 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짐승들과 다름이 없다.

그대 비구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너의 사지를 마디마디 가르거든 스스로 마음을 거둬들여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말고, 또한 입을 지켜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만약 성내는 마음을 제멋대로 놓아두면 스스로 도를 방해하고 공덕의 이익을 잃게 된다. 참음의 공덕은 계를 지키고 고행을 하는 것에도 미칠 수 없다.



인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러 힘이 있는 대인(大人)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남이 욕하여 꾸짖는 독을 감로수를 마시듯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도에 들어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냄의 해는 모든 선한 법을 깨뜨리고 좋은 명예를 무너뜨려 이생에서나 내생에서나 남이 보기 싫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한 것이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공덕을 겁탈하는 도적은 성냄보다 더한 것이 없다. 속인은 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누르고 살기에 자기를 제어하는 법이 없으므로 성을 내더라도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출가하여 도를 행하는 욕심 없는 사람으로서 성냄을 품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것이다. 맑은 구름 가운데 천둥이 울리고 번개 치는 것과 같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대 비구들이여, 그대의 머리를 만져보라. 이미 장식한 좋은 옷을 버리고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걸식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의 모습이 이러함을 보고 만약 교만이 일어나면 재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교만을 기르는 것은 세속의 사람도 오히려 마땅한 일이 아니거늘 하물며 출가하여 불문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해탈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마땅하겠는가?

그대 비구들이여, 아첨하고 거짓된 마음은 도와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그 마음을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라. 아첨과 바르지

못함은 그저 남을 속이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이럴 수가 없다. 그대들은 마음을 단정히 하여 순수와 정직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비구여,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아 고뇌 또한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도 없고 욕심도 없으므로 이런 근심이 없다. 욕심을 적게 하더라도 오히려 닦아 익히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모든 공덕을 냄에 있어서 이겠는가?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침과 거짚으로써 남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다시 모든 근(根)에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다. 욕심을 적게 하여 수행하는 이는 마음이 평안하여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마다 여유가 있어 항상 부족함이 없으니, 욕심이 적은 이는 곧 열반을 지니고 있음이라, 이것을 일러 욕심이 적다고 한다.

그대 비구들이여, 만약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면 만족할 줄 아는 앎을 관해야 한다. 만족할 줄 아는 법이 곧 부유하고 즐겁고 안온한 곳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맨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안락하고, 만족할 줄 알지 못하면 비록 천당에 있더라도 뜻에 맞지 않을 것이요, 만족할 줄 모르면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만족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五欲)에 이끌려 다니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연민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일러 만족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대 비구들이여, 만일 적정(寂靜) 무위(無爲)의 안락을 구하고자

하면 시끄러움을 떠나 홀로 한가한 곳에 있어야 한다. 고요한 곳에 있는 사람은 제석천과 모든 하늘이 함께 공경하고 존중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바깥의 여러 대중을 떠나서 한가한 곳에 홀로 처하여 괴로움의 근본을 생각해서 없애야 할 것이다. 대중을 좋아하는 사람은 곧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으니,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모여 앉으면 나무가 마르고 꺾여서 부러지는 근심이 있는 것과 같다. 세간에 얽매이고 집착하면 여러 가지 괴로움에 빠지리니, 늪은 코끼리가 늪에 빠져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일러 멀리 떠난다(遠離)고 한다.

그대 비구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 작은 물방울이라도 쉬지 않고 흐르면 돌을 뚫을 수 있듯이. 만약 수행자의 마음이 자주자주 게을러져 공부를 폐하면 그것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내고자 할 때 나무가 뜨겁기도 전에 쉬는 것과 같아 아무리 불을 얻고자 해도 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일러 정진이라 한다.

그대 비구들이여, 선지식을 구하고 선호조(善護助)를 구하려면 잊지 않고 생각하라. 만약 잊지 않고 생각하면 모든 번뇌의 도적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대들은 항상 생각을 거둬들여 마음에 두어야 한다. 만약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릴 것이요, 만약 생각하는 힘이 굳고 굳세면 비록 오욕(欲)의 도적 속에 들어가더라도 해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갑옷을 입고 적진에 들어가나 두려워할 것이 없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일러 잊지 않고 생각함이라 한다.

그대 비구들이여, 만약 마음을 가다듬어 흠어지지 않게 하려면 마음을 곧 선정에 두어야 할 것이니, 마음이 정(定)에 있어 세간의 생멸법의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대들은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모든 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만약 정을 얻은 사람이면 마음이 흠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을 아끼는 집안은 독이나 못을 잘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 수행하는 자도 또한 그러해서 지혜의 물이 새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선정[禪]이라 한다.

그대 비구들이여, 만약 지혜가 있으면 탐내고 집착함이 없을 것이니, 항상 스스로 반성하여 살펴서 잃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곧 나의 법 가운데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니와,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미 도인도 아니며 또 속인도 아니라 무엇이랴 이를 수 없다. 진실한 지혜는, 곧 늙고 병들고 죽는 바다를 건너는 견고한 배요, 또한 이 무명(無明)의 어둠 속의 큰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요, 번뇌의 나무를 베어내는 날카로운 도끼이다. 그대들은 듣고 생각하고 닦는 지혜로써 자신을 더욱 길러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의 빛을 지녔다면 비록 천안(天眼)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밝게 보는 사람이니, 이것을 일러 지혜(智慧)라 한다.

그대 비구들이여, 만약 갖가지 희론(戲論)을 하면 마음이 곧 산란해지나니 다시 출가하더라도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빨리 산란한 마음과 희론을 버려야 한다. 만약 그대들이 적멸(寂滅)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희론하는 버릇을 없애야 한

다. 이것을 일러서 희론하지 않음[不戲論]이라 한다.

그대 비구들이여, 모든 공덕에 있어서 항상 한마음으로 모든 방일 버리기를 원수와 도적을 멀리하듯이 하라. 크게 자비하신 세존께서는 이롭게 하고자 하심을 모두 구경(究竟)으로써 하셨으니, 그대들은 다만 부지런히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 혹 산간이나 빈 못가에 있거나, 혹 나무 밑에서나 또는 고요한 방에 한가히 있을 때라도 받은 법을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스스로 힘써서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죽으면 뒤에 근심과 뉘우침을 부를 것이다.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 병을 알아 약을 일러주는 것인데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요, 또 나는 착한 길잡이와 같아 좋은 길로 사람을 인도하되 내 말을 듣고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길잡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대들은, 만약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물어라. 의심한 채 해결을 구하지 않는 이는 없는가?”

이때 세존께서 이렇게 세 번 말씀하셨으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니룻타가 대중의 마음을 관찰하고는 붓다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달을 뜨겁게 하고 해를 차게 할 수는 있어도 붓다께서 말씀하신 사제(四諦)는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고제(苦諦)는 진실로 괴로움이라 즐거움이 될 수 없으며, 집제(集諦)는 이 괴로움의 참된 원인이라 다시 다른 원인이 없

으며, 만약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면 그 원인도 곧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 원인이 없어지므로 결과도 없어질 것이니, 괴로움을 없애는 도제(道諦)는 진실로 참된 도요, 다시 다른 도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사제에 대하여 결단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에 의심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붓다께서 입멸[滅度]하심을 보고 모두 슬픈 마음을 품고 있으며, 처음 법에 들어온 이라도 붓다의 말씀을 듣고 곧 모두 다 제도를 얻었다. 밤에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을 보고 곧 길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약 번뇌를 아주 끊어서 이미 고힘(苦海)를 건넌 사람들은 그저 ‘세존께서 입멸하심이 어찌 이렇게 빠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룻타가 비록 이렇게 모두 사성제(四聖諦)의 뜻을 밝게 안다고 말했으나 세존께서는 대중들이 다 견고함을 얻게 하고자 대비심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비구들이여, 근심하고 괴로운 마음을 품지 말라. 내가 만약 한 겁(劫) 동안 이 세상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마침내는 마땅히 멸할 것이요, 끝내 만나고 헤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은 법에 다 갖추어져 있으니 비록 내가 오래 머물러도 다시 더 이익될 것이 없다. 제도할 만한 자는 천상이나 인간이나 이미 다 제도하였고, 아직 제도하지 못한 자도 이미 다 제도할 인연을 지었다.

지금부터는 나의 제자들이 더욱더 쉬지 않고 이것을 행하면

바로 여래의 법신(法身)이 항상 머물고 있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무상하므로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세간도 이와 같은 것이니 부지런히 정진하여 빨리 해탈을 구해서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없애버려라. 세상은 진실로 위태롭고 무르고 약하여 단단하고 굳은 것이 없다.

내가 이제 입멸하는 것은 나쁜 병을 없애는 것과 같다. 이것은 버려야 할 나쁜 물건이거늘 거짓으로 몸이라 일러 생로병사의 큰 바다에 빠져 있으니, 어찌 지혜 있는 이가 이것을 없애기를 원수나 도적을 죽이는 것처럼 기뻐하지 않겠는가?

비구들이여, 항상 일심으로 부지런히 번뇌를 벗어나는 길을 구하라.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은 다 헐어서 무너질 불안한 것이니, 그대들은 그만 중지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때는 장차 지나가려 하고 나는 이제 입멸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다.”

[97쪽 예불참회문]

## 회향의

[수경계]

말씀 듣자 마음 열려  
붓다인 줄 알았으니  
일생토록 의심 않고  
시시때때 활용하리.

[회향계]

뛰어나고 가없는  
송경 공덕 회향하니  
고통 속의 중생들은  
극락세계 어서 가소.

나모붓다야 [십념]

[축원]

축원하려면 “나모붓다야” 십념 전에 “옴, 공경하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중생이 지혜로 안락하고 정토에 들게 하는 우리들의 스승이신 붓다님께 귀명합니다.” 하고 “나모붓다야/석가모니불/관세음보살/지장보살/약사여래/아미타불” 등 자신이 수행하는 불호를 십념 이상 염불한 다음 “붓다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가족 건강하고, 저의 학문/사업/직무 이뤄지며/성취하며, 친지들은 행복하고, 이웃들은 안락하며 구경에는 해탈하여지이다. 감” 하는 식으로 축원하고 마친다.



# 예불참회문

『禪門日誦』(上海佛學書局, 63~74)

대자비로 증생들을 어여삐 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나모 금강상사

南無金剛上師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歸依佛 歸依法 歸依僧

제가 이제 발심하여 예배하옵는  
 제 스스로 복 얻거나 천상에 나며  
 성문 연각 보살지위 구함 아니요  
 오직오직 최상승을 의지하옵고  
 무상정등정각심을 냄이오이다.  
 시방세계 여러 종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무상보리 얻어지이다.

나모 시방 진허공계 일체제불 [절]

南無十方塵虛空界一切諸佛

나모 시방 진허공계 일체존법 [절]

南無十方塵虛空界一切尊法

나모 시방 진허공계 일체현성승 [절]

南無十方塵虛空界一切賢聖僧

나모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南無 如來 應供 正徧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世尊

나모 보광불 보명불 보정불 다마라발전단향불  
南無 普光佛 普明佛 普淨佛 多摩羅跋耨檀香佛

전단광불 마니당불 환희장마니보적불  
耨檀光佛 摩尼幢佛 歡喜藏摩尼寶積佛

일체세간락견상대정진불 마니당등광불  
一切世間樂見上大精進佛 摩尼幢燈光佛

혜거조불 해덕광명불  
慧炬照佛 海德光明佛

금강뢰강보산금광불 대강정진용맹불  
金剛牢強普散金光佛 大強精進勇猛佛

대비광불 자력왕불 자장불  
大悲光佛 慈力王佛 慈藏佛

전단굴장엄승불 현선수불 선의불  
耨檀窟莊嚴勝佛 賢善首佛 善意佛

광장엄왕불 금화광불  
廣莊嚴王佛 金華光佛

보개조공자재력왕불 허공보화광불  
寶蓋照空自在力王佛 虛空寶華光佛

유리장엄왕불 보현색신광불  
琉璃莊嚴王佛 普現色身光佛

부동지광불 항복중마왕불 재광명불  
不動智光佛 降伏衆魔王佛 才光明佛

지혜승불 미륵선광불  
智慧勝佛 彌勒仙光佛

선적월음묘존지왕불 세정광불  
善寂月音妙尊智王佛 世淨光佛

용종상존왕불 일월광불 일월주광불  
龍種上尊王佛 日月光佛 日月珠光佛

혜당승왕불 사자후자재력왕불 묘음승불  
慧幢勝王佛 獅子吼自在力王佛 妙音勝佛

상광당불 관세등불 혜위등왕불 법승왕불  
常光幢佛 觀世燈佛 慧威燈王佛 法勝王佛

수미광불 수만나화광불  
須彌光佛 須曼那華光佛

우담발라화수승왕불 대혜력왕불  
優曇鉢羅華殊勝王佛 大慧力王佛

아촉비환희광불 무량음성왕불 재광불  
阿闍毘歡喜光佛 無量音聲王佛 才光佛

금해광불 산해혜자재통왕불 대통광불  
金海光佛 山海慧自在通王佛 大通光佛

일체법상만왕불  
一切法常滿王佛

[이상 53불은 『관약왕약상이보살경』, 이하 35불은 『결정비니경』에 나옴]

나모 석가모니불 금강불괴불 보광불 용존왕불  
南無 釋迦牟尼佛 金剛不壞佛 寶光佛 龍尊王佛

정진군불 정진희불 보화불 보월광불  
精進軍佛 精進喜佛 寶火佛 寶月光佛

현무우불 보월불 무구불 이구불 용시불  
現無愚佛 寶月佛 無垢佛 離垢佛 勇施佛

청정불 청정시불 사류나불 수천불  
淸淨佛 淸淨施佛 娑留那佛 水天佛

견덕불 전단공덕불 무량국광불  
堅德佛 栴檀功德佛 無量掬光佛

광덕불 무우덕불 나라연불 공덕화불  
光德佛 無憂德佛 那羅延佛 功德華佛

연화광유희신통불 재공덕불 덕념불  
蓮華光遊戲神通佛 才功德佛 德念佛

선명칭공덕불 홍염제당왕불  
善名稱功德佛 紅焰天帝幢王佛

선유보공덕불 투전승불 선유보불  
善遊步功德佛 鬪戰勝佛 善遊步佛

주잡장엄공덕불 보화유보불  
周匝莊嚴功德佛 寶華遊步佛

보련화선주사라수왕불  
寶蓮華善住娑羅樹王佛

나모 법계장신아미타불 [출전 염구경]  
南無法界藏身阿彌陀佛

이와 같은 모든 세계 제불세존은  
어느 때나 증생들과 함께 하시니  
저희들을 이제 다시 살피주소서  
저희들의 지난날을 생각하오면  
이생으로 저 생으로 그 먼 생으로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려오면서  
가지가지 지은 죄가 한이 없으니  
제 스스로 혼자서도 지었사옵고  
다른 이를 시켜서도 짓게 했으며  
남이 하는 나쁜 짓을 좋아하였고  
탐전이나 삼보도량 갖춘 물건도  
승물이나 사방승물 가릴 것 없이  
제것인양 마음대로 갖기도 하고  
다른 이를 시켜서도 흠치었으며  
상주물건 흠치기를 좋아하였고  
무간지옥 떨어질 오역증죄도  
제 스스로 혼자서도 지었사오며  
다른 이를 시켜서도 짓게 했으며

남이 짓는 오역죄를 좋아하였고  
삼악도에 떨어질 십악중죄도  
제 스스로 혼자서도 지었사옵고  
다른 이를 시켜서도 짓게 했으며  
남이 짓는 십불선도 좋아했으니  
이와 같은 모든 죄가 태산 같으되  
어떤 것은 지금에도 생각에 남고  
어떤 것은 아득하여 알 수 없으나  
알든 말든 지은 죄에 오는 과보는  
지옥 아귀 축생도나 다른 악취나  
변지하천 멸려차로 떨어지리니  
제가 이제 지성 다해 붓다님 전에  
이와 같은 모든 죄상 참회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제불세존은  
저희들의 온갖 일을 다 아시오니  
대자비심 베푸시어 살피주소서  
제가 다시 제불 전에 아뢰옵니다.  
저희들이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보시공덕 지었거나 계를 가지되  
축생에게 먹이 한입 준 일로부터  
칭정범행 닦고 익힌 정행공덕과

증생들을 성취시킨 선근공덕과  
 무상보리 수행해온 수행공덕과  
 위 없는 큰 지혜의 모든 공덕도  
 모든 것을 함께 모아 요량하여서  
 남김없이 보리도에 회향하옵되  
 시방삼세 상주하신 붓다님께서서  
 지으신 온갖 공덕 회향하듯이  
 저도 또한 그와 같이 회향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죄상 참회하옵고  
 모든 복덕 남김 없이 수희하오며  
 붓다님을 청하온 공덕으로써  
 무상지혜 이뤄지길 원하옵니다.  
 시방삼세 상주하신 붓다님들은  
 시방세계 다함없는 증생들에게  
 가없고 한량없는 공덕바다니  
 제가 이제 목숨 바쳐 절하옵니다.  
 가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에  
 과거현재 미래세의 붓다님들께  
 맑고 맑은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옵되  
 보현보살 행과 원의 위신력으로

널리 일체 여러 전에 몸을 나투고  
 한몸 다시 찰진수효 몸을 나타내  
 찰진수불 빠짐없이 예경합니다.  
 일미진증 미진수효 붓다님 계셔  
 곳곳마다 많은 보살 모이시었고  
 무진법계 미진에도 또한 그같이  
 붓다님이 충만하심 깊이 믿으며  
 몸몸마다 한량없는 음성으로써  
 다함없는 묘한 말씀 모두 내어서  
 오는 세상 일체법이 다할 때까지  
 붓다님의 깊은 공덕 찬탄합니다.  
 아롬답기 으뜸가는 여러 꽃타래  
 좋은 풍류 좋은 향수 좋은 일산들  
 이와 같은 훌륭한 장엄구로써  
 시방삼세 붓다님께 공양하오며  
 으뜸가는 좋은 의복 좋은 향들과  
 가루향과 꽃는 향과 등과 촛불의  
 날날 것을 수미산의 높이로 모아  
 일체여래 빠짐없이 공양하오며  
 넓고 크고 수승하온 이 내 슬기로  
 시방삼세 붓다님을 깊이 믿삽고

보현보살 행원력을 모두 기울여  
 일체제불 빠짐없이 공양합니다.  
 지난 세상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무시 이래 탐냄 성냄 어리석음에  
 몸과 말과 뜻으로서 지어 왔으니  
 제가 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시방세계 여러 종류 모든 증생과  
 성문 연각 유학 무학 여러 이승과  
 일체 모든 붓다님과 모든 보살의  
 지니오신 온갖 공덕 기뻐합니다.  
 시방세계 계시옵는 세간등불과  
 가장 처음 보리도를 이루신 님께  
 위 없는 묘한 법문 설하시기를  
 제가 이제 지성 다해 권청합니다.  
 붓다님이 대열반에 들려하시면  
 무량겁을 이 세상에 계시오면서  
 일체증생 이락하게 살피주시길  
 있는 지성 기울여서 권청합니다.  
 붓다님을 예찬하고 공양한 공덕  
 오래 계셔 법문하심 청하온 공덕  
 기뻐하고 참회하온 온갖 선근을



중생들과 보리도에 회향합니다.  
 예참하여 수승한 일체 공덕을  
 위 없는 진법계에 회향하소서.  
 이치에도 현상에도 막힘이 없고  
 불법이고 세간이고 걸림이 없는  
 삼보님과 삼매인의 공덕바다를  
 제가 이제 남김없이 회향하오니,  
 모든 중생 신구의로 지은 업장들  
 잘못 보고 트집 잡고 비방도 하고  
 나와 법을 집착하여 내던 망견들  
 모든 업장 남김없이 소멸되어서  
 순간순간 큰 지혜가 법계에 퍼져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이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고 번뇌 다함이  
 넓고 크고 가없어 한량없으니  
 저희들의 회향도 이러지이다.

나모대행보현보살 〃 나모대행보현보살마하살  
 나모 참회사보살마하살 [삼칭]

[시식할 때는 109쪽으로]

## 회향의

[수경계]

말씀 듣자 마음 열려  
붓다인 줄 알았으니  
일생토록 의심 앓고  
시시때때 활용하리.

[회향계]

뛰어나고 가없는  
송경 공덕 회향하니  
고통 속의 중생들은  
극락세계 어서 가소.

나모붓다야 [십념]

[축원]

축원하려면 “나모붓다야” 십념 전에 “옴, 공경하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중생이 지혜로 안락하고 정토에 들게 하는 우리들의 스승이신 붓다님께 귀명합니다.” 하고 “나모붓다야/석가모니불/관세음보살/지장보살/약사여래/아미타불” 등 자신이 수행하는 불호를 십념 이상 염불한 다음 “붓다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가족 건강하고, 저의 학문/사업/직무 이뤄지며/성취하며, 친지들은 행복하고, 이웃들은 안락하며 구경에는 해탈하여지이다. 감” 하는 식으로 축원하고 마친다.

# 시 식 의

『禪門日誦』(上海佛學書局, 81~88)

일심경례 시방상주 일체 상주삼보 [절]

지심귀명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절]

삼세 모든 붓다의 가르침을 깨치려면

일체는 마음이 지었다고 살필지니라.

파지옥진언 「옴 가라데야 스바하」

보소청진언 「나모 보보데리 가리다리 다타아다야」

해원결진언 「옴 삼다라 가다 스바하」

나모대방광불화엄경

나모상주시방불 나모상주시방법

나모상주시방승 나모본사석가모니불

나모관세음보살 나모명양주고지장왕보살

나모기교아난존자 [각 3편]

귀의불 귀의불양족존 귀의불경

귀의법 귀의법이욕존 귀의법경

귀의승 귀의승증증존 귀의승경 [각 3편]

예로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시작 없는 그때부터 탐진치로 인해  
몸과 입과 뜻에서 지어진 것이니,  
일체를 내가 지금 참회합니다.

증생을 다 견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성 증생 견지오리다.  
자성 번뇌 끊으오리다.  
자성 법문 배우오리다.  
자성 불도 이루오리다.

지장보살멸결정업다라니  
「옴 바라마니다니 스바하」  
관음보살멸업장진언  
「옴 아로륵제 스바하」

개인후진언 「옴 보보디리 가다리 다타아다야」  
삼매야제진언 「옴 삼매야 살다 밤」

변식진언

나모 살바 다타아다 바로기데

「옴 삼바라 삼바라 흠」 [칠편]

감로수진언

나모 소로바야 다타아다야 다냐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스바하」 [칠편]

일자수륜주 「옴 밤 밤 밤 밤」 [칠편]

유해진언 나모 사만다 못다남 「옴 밤」 [칠편]

「나모다보여래      나모보승여래

나모묘색신여래      나모광박신여래

나모이포외여래      나모감로왕여래

나모아미타여래」 [삼편]

신비한 진언으로 가지한 청정한 법식을  
널리 향하사 수의 귀신들에게 베풀으니  
모두 배 불러 드시고 간탐심 버리고  
속히 유명계 떠나 정토에 나소서.

삼보에 귀의하고 보리심 내어

구경에는 무상도를 이루소서.

공덕이 한량없으니 미래세가 다하도록

일체중생과 함께 법식을 받으소서.

그대 귀신들이여,  
내 이제 그대들께 공양 베푸니  
이 음식이 지방에 두루 퍼져서  
일체 귀신이여, 공양하소서.

이 공덕 일체에 미쳐  
우리 함께 다 같이  
불도를 이루오리다.

시무차식진언 「옴 목역능 스바하」

보공양진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후」

### [반야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취 보고 중생의 온갖 고통과 액난을 건졌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그러하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공에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늘고 죽음도 늘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해도 연음도 없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붓다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라. 이제 반야주를 설하리라. “가데 가데 파라가데 보디 스와하”

## 왕생정토신주

「나모 아미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타 아미리도바  
비 아미리다 싯담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깃다가리 스바하」 [3편]

사생은 보배 땅에 오르고,  
삼유는 연을 심은 못에 의탁하여 화생하며,  
항하사 수의 아귀들이 삼현을 증득하고  
온갖 종류의 유정들이 십지에 오릅니다.

[찬미타불게]

아미타불 거룩하신 자금색의 찬란한 몸  
단정하고 엄숙하여 비교될 이 따로 없고  
눈썹 사이 밝은 흰털 수미산을 구르는 듯  
검푸른 눈 맑은 동자 사대해의 상징인가  
광명 속에 나타내서 무수의 억만 붓다  
화현하신 보살대중 그 수 또한 끝이 없네.  
사십팔원 큰 원으로 모든 증생 제도하사  
구품대로 생명들을 피안으로 들게 했네.

나모 서방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십념]

## 회향의

[수경계]

말씀 듣자 마음 열려  
붓다인 줄 알았으니  
일생토록 의심 앓고  
시시때때 활용하리.

[회향계]

뛰어나고 가없는  
송경 공덕 회향하니  
고통 속의 중생들은  
극락세계 어서 가소.

나모붓다야 [십념]

[축원]

축원하려면 “나모붓다야” 십념 전에 “옴, 공경하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중생이 지혜로 안락하고 정토에 들게 하는 우리들의 스승이신 붓다님께 귀명합니다.” 하고 “나모붓다야/석가모니불/관세음보살/지장보살/약사여래/아미타불” 등 자신이 수행하는 불호를 십념 이상 염불한 다음 “붓다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가족 건강하고, 저의 학문/사업/직무 이뤄지며/성취하며, 친지들은 행복하고, 이웃들은 안락하며 구경에는 해탈하여지이다. 감” 하는 식으로 축원하고 마친다.



## 좌 선 문 [좌선의]

참선 수행에 대해서 원효대사께서는 『기신론』을 빌어 “주어정처住於靜處 단좌정의端坐正意”라 말씀하시고, 천태 지의 대사는 『천태소지관』 「조화 제4」에서 “음식을 조절하고, 수면을 조절하며, 몸을 조절하고, 기식氣息을 정돈하며, 마음을 조절하는 다섯 가지 법”을 설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조용하고 정갈한 장소에서 조신調身하고, 조식調息하며 조심調心하는 것이다.

참선을 하고자 할 때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자세를 바르게 하여 단정하게 앉아 뜻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장소가 참선하는 데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주변의 잡음이 차단되는 곳이어야 하며 인공적인 소음이 적은 자연 속의 고요하고 깨끗한 장소이면 더욱 좋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세는 바르게 앉는다.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하고 허리의 척추 뼈를 반듯이 세우고 오른손을 왼발 위에 놓고 왼손 바닥을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려 놓으며 양손의 엄지손가락의 끝을 서로 맞대어 받쳐준다. 그리고 몸을 천천히 일으켜 앞으로 펴고, 좌우로 몇 번 흔들여 잘 정돈한 뒤에 몸을 바르게 하여 단정히 앉는다. 허리와 등뼈, 머리와 목의 골절이 서로서로 떠받치어 그 모양이 마치 탑을 세워 놓은 것처럼 반듯하게 한다. 귀와 어깨가 서로 나란히 되도록 하며, 코와 배꼽이 서로 수직이 되게 하고, 혀는 입천장을 가볍게 떠받치게 하며, 위아래의 입술과 이는 서로 맞대어 가볍게 다물도록 한다. 눈은 반쯤 뜨게 하여 졸음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둘째는 호흡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다. 몸을 단정히 하여 호흡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하여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복식(단전)호흡을 통해 호흡이 길어지고 고르게 되도록 하고 수식관을 통해 집중력을 기르게 되면 호흡은 저절로 가지런하게 되어 미세하고 섬세하며 부드러워진다.

셋째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계穢를 청정하게 지켜서 마음을 맑게 하고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른 원願을 세우고 샅된 명예나 이익만을 따라가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고요한 마음이 진여의 이치에 맞아떨어져서 자신은 물론 남도 제도하는 최고의 도에 이르고자 하는 결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정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몸을 다스리고, 호흡을 가지런하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여 참선 수행에 돌입하게 된다. 좌선의 시작이다.

## 삼매: 心一境性の 設立

불교 수행의 목적지는 해탈과 열반입니다. 해탈은 괴로움으로부터의 벗어남이요, 열반은 삼독의 불꽃을 꺼뜨려 행복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삼독(탐진치)의 원인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원인임을 일단 이해하고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면 곧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을 알아채어, 대상경계를 어떻게 조절해보려는 행위를 멈추고 진여본체로 돌이키는 것이 심일경성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폭류처럼 거칠고 엄청나고 견잡을 수 없이 펼쳐집니다. 이 폭류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를 잡아 본래 자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폭류를 우선 멈추는 것이 집중입니다. 휘몰아치는 생각의 소용돌이를 한곳으로 모으고 모아 한 점에 모이게 하고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게 합니다. 이 집중이 지속되면 '텅 비어 모양은 없지만 분명하게 인식되는' 보는 자가 인식이 됩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보이고, 대상경계를 대상으로 온전히 인식하는 인식체가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심일경성의 설립입니다.

심일경성이 설립되면 생각이 침범하지 않은 상태(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내 앞에 펼쳐진 현장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참선할 때의 분명했던 눈앞의 한 점이 삶 속에서는 눈앞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괴롭거나 화가 나서 견디기 어려우면 현장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현장을 외면하기, 대체하기, 싸우기, 도망가기 등의 기술로 싫어하는 현장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하지만 잠시일 뿐 그 현장은 어느 순간 다시 닥쳐옵니다. 그러니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때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점으로 모아 집중했던 수행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현장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다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알아채어 현장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심일경성을 닦는 것입니다.

한 점에 집중된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마음은 평온해지고, 생각은 잦아 들고 아는 자[마음]가 명확해집니다. 한 점이 흐트러진다면 그 어떤 훌륭한 생각이나 경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생각이 치밀어 오르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그대로 드러내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번뇌와 망상은 실체가 아니기에 그대로 인식만 해도 스스로 사

라집니다.

[물론 큰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겠다. 죽음이라고 달게 받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참선수행을 하면 지은 업도 사라진다는 망상은 버리고 큰 용맹심을 지녀야 합니다.] 참선 수행은 성실함과 진실함만이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주게 됩니다.

이렇게 심일경성이 명확히 설립된 상태에서 참선, 염불, 주력, 절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더욱 깊어지고 궁극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본다면 심일경성은 마음을 하나의 경계에 집중하여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다시 풀어 설명해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보면,

- ① 한 점에 모은 집중이 흐트러져도 생각에 험싸임을 알아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생각에 많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되고
- ② 집중이 잘 유지되면 언뜻언뜻 생각이 일어남을 자각하여 생각의 모양새가 이렇구나, 하고 알아 생각을 생각으로 알게 되고
- ③ 집중이 흐트러지면 생각이 침범했음을 알게 되고
- ④ 생각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은, 보는 입장에서 심일경성이 잘 유지되는 것이며
- ⑤ 심일경성이 명확히 설립되면 생각을 보게 되고, 생각이 힘을 잃고 생각이 점차 소멸하게 되고 생각이 일어나는 횟수도 감소한다.
- ⑥ 설립된 심일경성을 지속되게 하는 것이 참선이고 명상이며, 심일경성이 지속되면 본성에 점점 가까이 도달하며 부드럽고 유연하며 기쁨에 차고 지혜로우며 장애가 와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현명하게 수습해 나간다.
- ⑦ 심일경성이 설립된다는 것은 집중된 마음이 고요하며 형상이 없고 밝고 분명하며 텅 비어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 ⑧ 확연히 분명해지는 심일경성 하에서 번뇌와 생각은 여실히 드러나 자각되고 자각된 번뇌는 마주하는 진여 앞에서 실체 없이 사라져간다.
- ⑨ 번뇌와 생각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더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초기의 생각이 등장하려고 할 때 이미 진여(심일경성)가 설립되어 생각의 줄기가 차단되고 뿌리가 뽑힌다.
- ⑩ 더 이상의 번뇌가 없는 나는 열반이고 생각의 묶임에서 풀려난 나는 본래 자유로운 해탈이다.
- ⑪ 참선 수행을 통해 해탈과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 ⑫ 심일경성이 설립된 상태에서 참선과 염불, 주력, 절 수행을 하게 되면 심

일경성이 더욱 확고해져서 번뇌와 생각의 폭류에서 벗어나 일심에 머물러 생명의 세계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 ⑬ 심일경성을 이루면 반드시 불법의 궁극에 도달할 수 있다.
- ⑭ 시작은 오정심관(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계분별관, 수식관)으로 할 수 있다.
- ⑮ 이보시오! 지금 들리오? 아는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러쿵 저러쿵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심일경성이 명확히 설립되어 수행이 깊어지면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듯해집니다. 자비의 눈빛과 배려의 손길이 넘실거립니다. 지혜를 겸비하게 되어 작은 일은 작은 대로 큰일은 큰일대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현장을 떠난 행복은 없습니다. 심일경성이 설립되면 현장,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상락아정의 행복이 갖춰지게 됩니다.

심일경성(心一境性): 선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심일경성(心一境性, ekaggatā)을 확고하게 갖춘 것이다. 심일경성이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것이다. 팔리어 에깁가따(ekaggatā)는 ‘일경성(一境性), 집중(concentration), 마음의 평온, 명상(contemplation)’이라는 뜻을 가진다. 후대 논서에 따르면 에깁가따는 52가지 마음의 작용(心所, cetasika) 중 하나로 다른 것과 같아지는 심소(心所)다. 그래서 ‘에깁가따’는 선한마음의 집중일 때와 불선한 마음의 집중일 때가 있는데, 수행에서 에깁가따는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선한 마음의 집중(善心一境性)을 의미한다.

## 일과는 완성의 길

붓다의 마지막 당부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정진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바웃다는 없을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불조의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는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좋은 일은 열심히 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衆善奉行 諸惡莫作]”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여든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바웃다 일과』는 생활 속에서 불교를 하자는 사단법인 세계불학원의 바웃다(불자)들이 일일 과송과 정진의 의범으로 편찬하였다. 우리의 이상이자 정토인 세계일화를 위해서 보편적 일과로 최소한의 염송과 칭명 삼매 닦기를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함께하는 석학들의 제언이 모이고, 염송의 편의와 불교의 기본적 전통과 교학의 터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현대인들의 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참여하는 바웃다들이 이 작은 의범을 의지해서 수행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불전에 축원한다.

갑진 陽月

[사]세계불학원 바웃다의범 편찬위원회

위원장 牛一 박영만

위 원 牛祥 문기조, 牛南 이철준, 牛汕 이성운, 牛塵 박선각, 牛晉 전영숙

牛禪 최건업, 牛神 정기선, 牛仁 조희연, 牛行 광묘신, 牛顯 정창현

간 사 牛利 이서현, 牛里 이미연

## 바웃다 일과 [시안]

2024년 10월 26일 초판

편역: 세계불학원 바웃다의범 편찬위원회

펴낸 곳: 정우북스

펴낸 이: 이미연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1231호

신고 1992.5.16. 제1992-000048호

전화 02) 720-5538

<비매품>